

서울시 THE DAILY NEWS REVIEW - 13

(2020년 3월 10일 화요일)

코로나19 대응 주요 소식

발행일 2020.3.10.

발행처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발행인 최재필 · 김창보

홈페이지 www.scdc.or.kr · www.seoulhealth.kr

■ 국내 '코로나19' 248명 추가 확진으로 총 7,382명, 서울시 어제만 19명 추가 확진, 총 149명

■ 이탈리아 코로나19 누적확진 7,375명... 유럽최대위기

■ 감염경로 오리무중 확진자 비율 서울 35.1%...경북 28.1% 대구 17.9%

■ 서울시, 자치구 역학조사 강화 바로 방역조치...코로나19 역학조사 체제 개편

■ 기존 인력으로 24시간 코로나 대응... 더 버티기 힘든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 “추경, 코로나 충격 흡수 역부족...취약계층 직접 지원 늘려야”

1. 발생 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판

질병관리본부 '20.03.09. 00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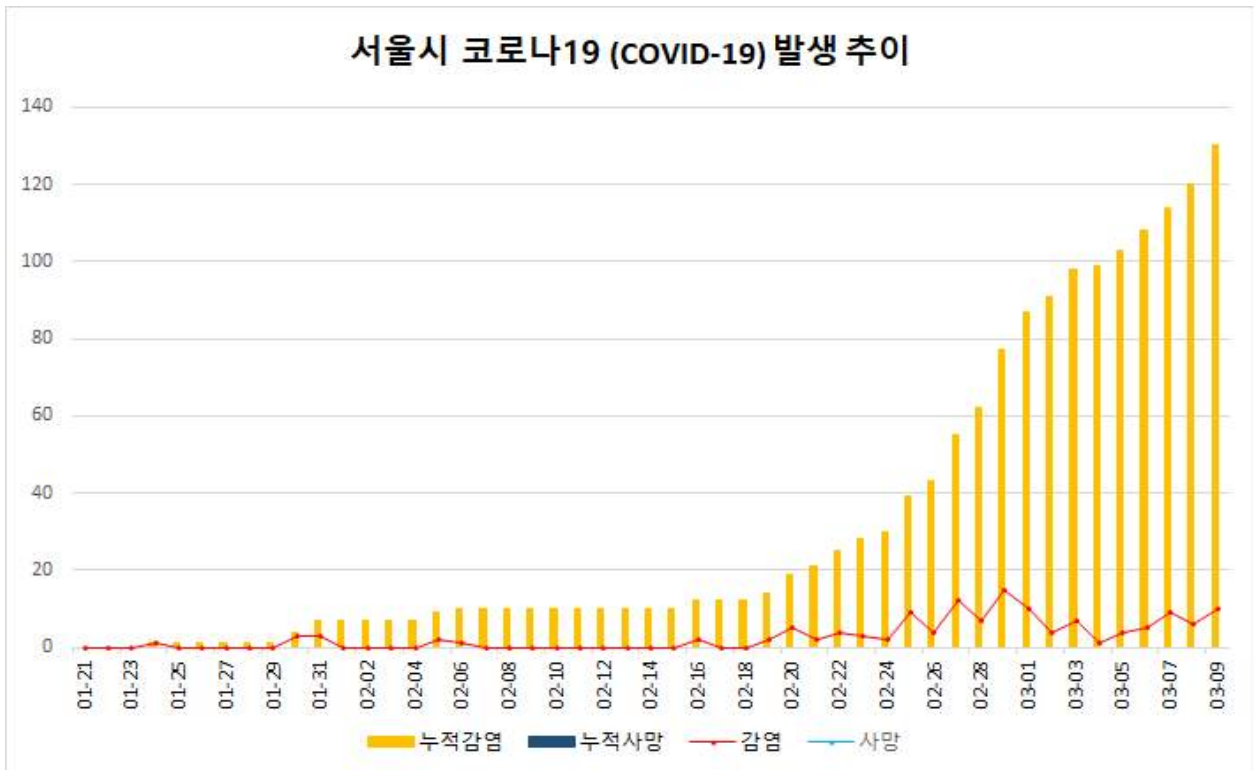
	확진환자 현황			검사 현황***			자가격리자 현황		
	확진자	사망자	격리해제	검사건수	검사중	결과음성	계	감시중	감시해제
서울시*	156	0	30	33,532	3,634	29,898	4,782	1,460	3,322
전 국	7,382	51	166	189,236	17,458	171,778	-	-	-
전세계**	110,055	3,828	-	-	-	-	-	-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코로나19 발생동향' '20.03.10. 00시 기준

**전 세계의 경우, '위키피디아' '20.03.09. 16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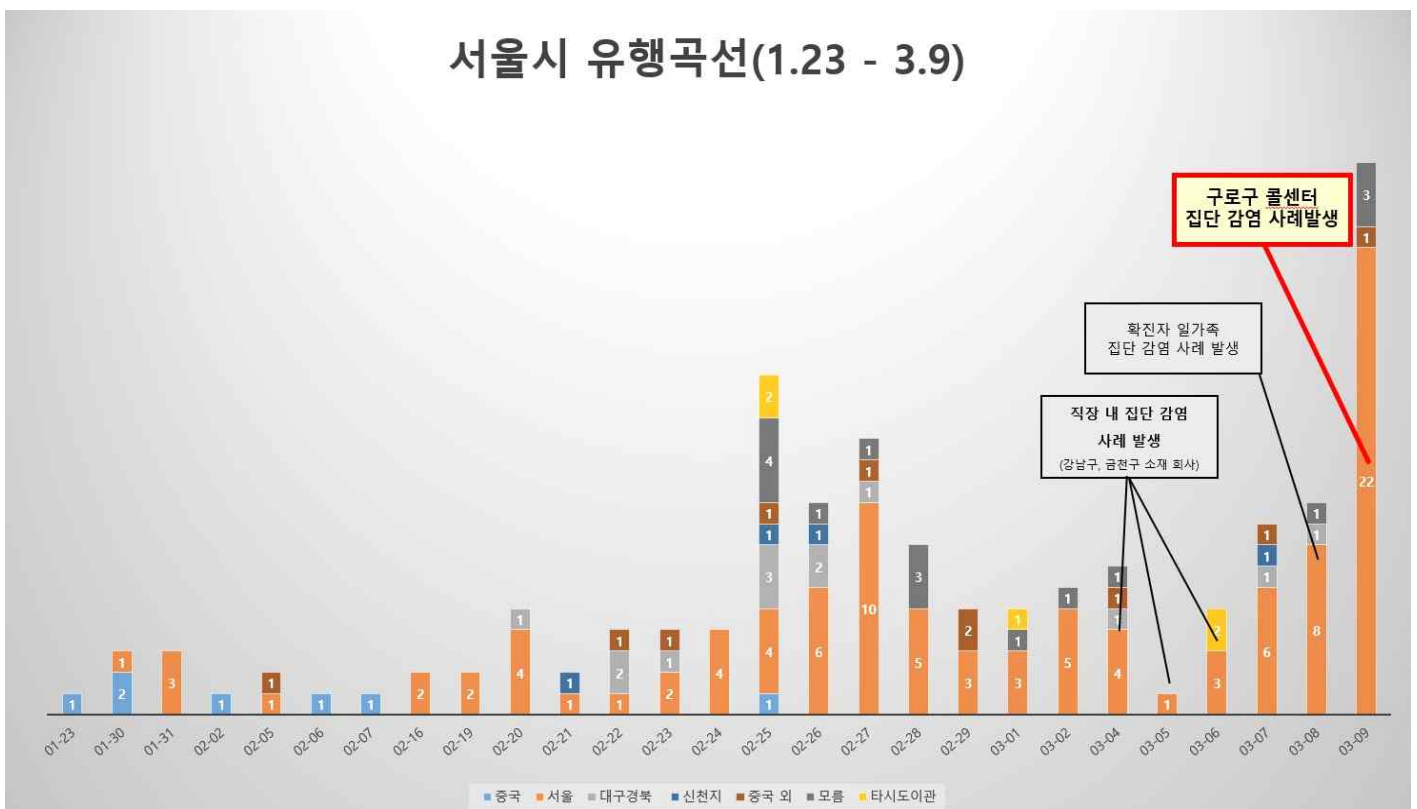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 실시 현황

- 서울시 신규 확진자 26명 추가 환자 발생, 총 156명 보고됨
 - 입원환자 126명, 격리해제 30명 / 질병관리본부 확진환자 130명(미발표 26명)
 - 국내 사망자는 51명으로 치명률은 0.69%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현재 기준 서울시 사망자 없음
- 서울시 확진환자 일별 발생 현황 (2020.3.8.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코로나19(COVID-19) 발생 추이 (*질병관리본부 확진일기준)

서울시 유행곡선(1.23 - 3.9)



서울시 코로나19(COVID-19) 유행곡선

● 서울시 신규 확진자 환자구성

계	구로구 콜센터 관련	중국의 해외방문력	확진자 접촉	조사중
26	21	1 (필리핀)	1	3

-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 직·간접 감염 의심사례 발생 : 총 21명 양성 확인
- 나머지 5건은 해외유입추정(필리핀), A교회 관련 접촉자, 조사 중 3건임
- * 직장 내 집단감염, 가족 간 전파로 인한 감염사례가 2.28 성동구 S아파트 관리실 집단감염 발생 이후 증가하는 추세임
- * 자가격리 시행 시, 대상자의 격리수칙준수 여부 등 자치구의 파악이 필요하며, 격리 목적으로 생활치료 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려 및 대책방안이 필요함
- * P병원 사례를 들어, 감염병 전문병원 및 치료센터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의료기관 진료거부 경험을 줄이고, 안심하고 진료 및 검사, 치료, 추구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서울시 확진자 건강상태(2020.3.9. 10:00 기준)

(단위 : 건)

환자구분			상태부분 (퇴원환자제외)					
계	환자	의료인	소계	경증	중등증	중증	최중증	*확인중
156	154	2	126	70	3	15	1	37

*확인중 : 의료기관 감염관리실로부터 수합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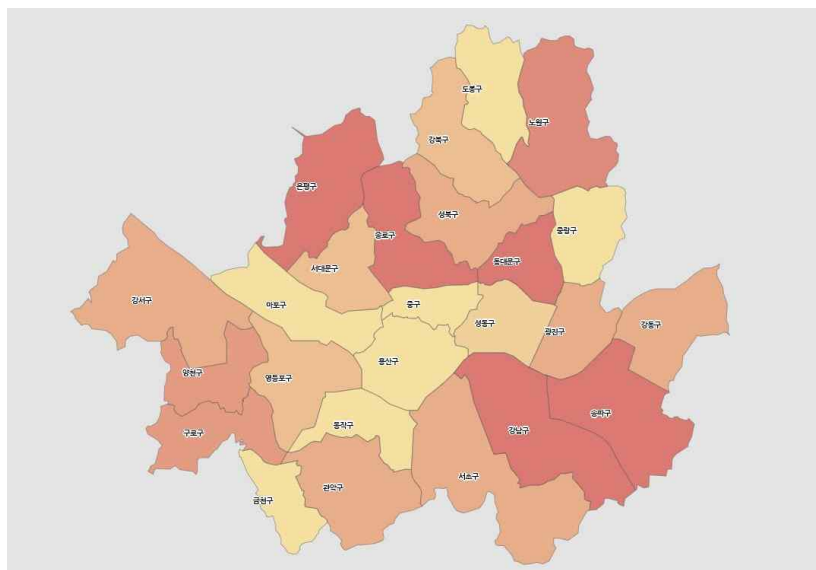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 현황

- 149명(송파12, 강남12, 종로11, 노원9, 은평11, 성북6, 서초6, 관악5, 양천6, 강동5, 서대문4, 영등포4, 동대문11, 강북4, 성동3, 강서5, 중랑2, 광진2, 동작2, 도봉1, 용산1, 마포1, 구로8, 금천1, 중구1, 기타16(타시도 이관))
- 총 25개구에서 확진환자 발생함. (*중구 추가)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송파	종로	강남	노원	은평	성북	서초	관악	양천	강동	서대문	영등포	동대문	강북	성동	중랑	강서	광진	동작	도봉	용산	마포	구로	금천	중구	기타	계
누계	12	11	12	10	12	6	6	5	7	5	4	4	11	4	3	2	6	2	2	1	1	1	9	2	1	17	156
일계	-	-	-	1	4	-	-	-	2	1	-	-	-	-	-	-	3	-	1	-	-	-	8	1	1	4	26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분포

● 서울시 전체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3.9. 17:00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소)

합 계	자치구				의료기관				
	소계	보건소내	임시 선별진료소 및 상담소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소계	국가 지정	지역 거점	국공립 병원	민간 병원
81	42	32	6	4 ¹⁾	39	5	6	7²⁾	21

1) (3.3일자) 은평병원, 舊소방학교, 잠실주경기장 개소, (3.5일자) 이대서울병원 개소

2) 어린이병원: 관내 선별진료소 설치 (기존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전환 후 관내 추가설치)

●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3.9. 17:00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소)

자치구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상담소 5개소> 중구, 광진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합 계	보건소 내	보건소 외	
33	32*	1	

* 성북, 금천, 노원, 은평, 중랑, 강북, 서초구 보건소 내 2개소 운영(7개구 총 14개소), 그 외 자치구는 1개소 운영(18개구 총 18개소)

● 보건소 선별진료소 일별 운영 현황 (2020.3.9. 17:00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소)

날짜	진료		검체		X-ray	
	계	누계	계	누계	계	누계
주간 합계 (3.1~3.7.)	9,213	35,090	6,164	19,086	129	941
3.7(토)	871	35,090	612	19,086	2	941
3.6(금)	977	34,149	670	18,399	14	936
3.5(목)	1,153	33,117	792	17,680	10	922
3.4(수)	1,278	31,895	821	16,939	16	903*
3.3(화)	1,414	30,557	998	16,070	29	933
3.2(월)	2,211	29,010	1,464	14,946	21	907
3.1(일)	1,309	26,945	807	13,333	37	891

* X-ray 실적 일부 자치구 계산 오류로 전일 대비 누계 감소

● 보건소 선별진료소 주간 운영 현황 (2020.3.9. 17:00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진료		검체		X-ray	
	계	누계	계	누계	계	누계
금주 합계 (3.1~3.7.)	9,213	35,090	6,164	19,086	129	941
전주 합계 (2.23~2.29.)	15,370	24,760	8,743	11,950	361	854
증감현황	▲6,157	-	▲2,579	-	▲232	-

- 3.1.~3.7. 한 주간 진료 건수 중, 검체 검사 실시 비율은 66.9%임.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3.9. 17:00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구분	진료		검체 검사		비고
	계(3.8.)	누계	계(3.8.)	누계	
계	864	30,801	518	12,011	
국가지정	122	6,311	75	2,728	
지역거점	187	4,992	154	1,862	
국공립병원*	167	2,003	90	1,459	
민간병원	388	17,495	199	5,962	

* 어린이병원, 은평병원은 3.3부터 차량이동 선별진료소로 변경, 북부병원은 2.29부터 미운영

● 차량이동(Drive-Thru)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3.9. 17:00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구분	진료		검체 검사		비고
	계(3.8.)	누계	계(3.8.)	누계	
계	88	1,124	73	936	
은평병원	13	218	13	208	3.3.개소
舊소방학교	23	240	18	132	3.3.개소
잠실주경기장	52	525	42	457	3.3.개소
이대서울병원	0	141	0	139	3.5.개소

* 이대서울병원은 주말에 차량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음(3.7.-3.8.미운영)

* 향후,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주 단위 비교예정

● 국내 확진환자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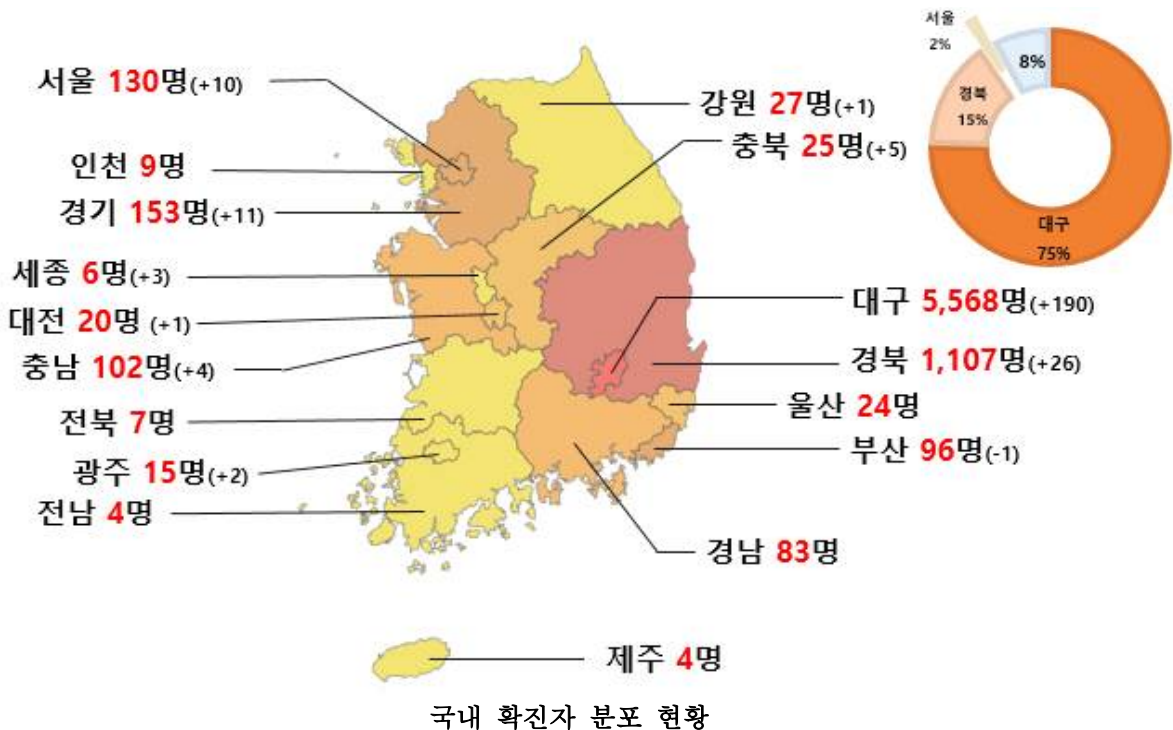
- 국내 확진자는 7,382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248명 추가)으로 보고됨.
- 사망자는 51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1명 추가)으로 치명률은 0.69%으로 확인됨.
- 전국적으로 **약 79.7%는 집단발생(cluster)과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및 조사·분류 중인 사례는 약 20.3%임.
- * 전체 확진 사례 중 신천지 관련 집단발생은 4,617명(62.5%)임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3.9.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3.8.(일) 0시 기준	188,518	7,134	130	6,954	50	181,384	19,376	162,008
3.9.(월) 0시 기준	196,618	7,382	166	7,165	51	189,236	17,458	171,778
증감	8,100 (4.1%)	248 (3.4%)	36 (21.7%)	211 (2.9%)	1 (2.0%)	7,852 (4.1%)	▲1,918 (▲11.0%)	9,770 (5.7%)

- 새롭게 확진된 환자 248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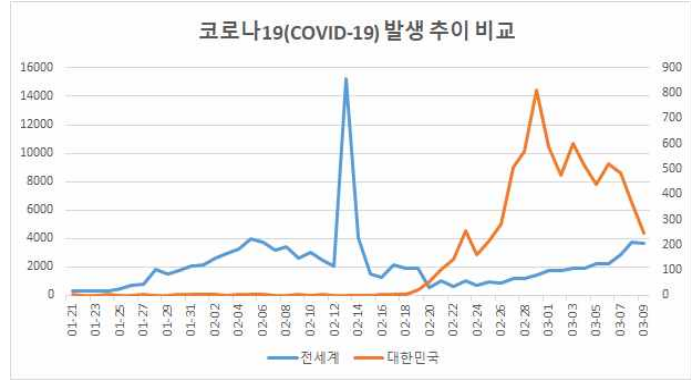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격리 중	7,165	101	86	5,515	7	12	18	23	6	129	24	22	101	5	3	1,036	74	3
격리 해제	166	29	10	21	2	3	1	1	0	22	3	3	1	2	1	57	9	1
사망	51	-	0*	35	-	-	-	-	-	1	1	-	-	-	-	14	-	-
합계	7,382	130	96	5,571	9	15	19	24	-	152	-	25	102	7	4	1,107	83	-
증감	248	10	▲1	190	-	2	1	-	3	11	1	1	4	-	-	26	-	-



– 국내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2020.3.9. 00: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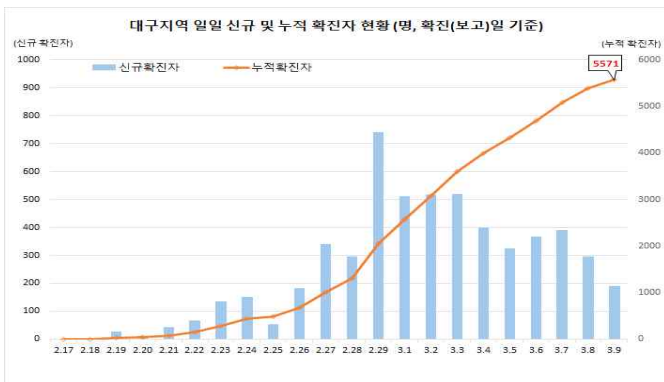
국내 코로나19 추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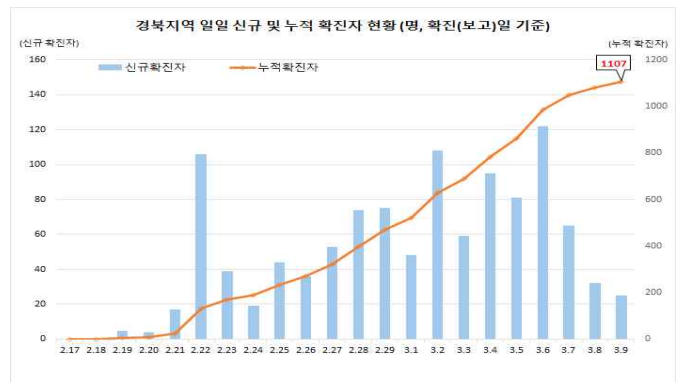
코로나19 발생 추이 비교

- * 금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총 7,382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최근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양상을 보임.
- * 일별 신규 확진환자 수는 지난달 29일 900여명의 정점을 갱신한 이후 차츰 줄어들어 최고치의 1/3까지 감소함.

– 대구·경북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2020.3.9. 00: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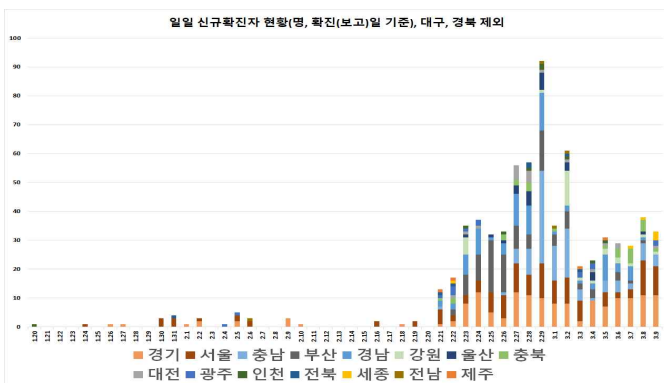
대구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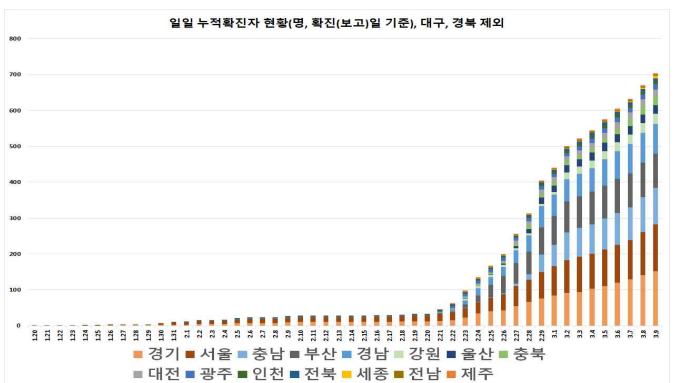
경북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신천지 신도 대상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증가 추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추가 전파가 확인됨.
- * 이에, 신천지 신도에 의한 지역사회 2-3차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감염이 뚜렷하게 감소하도록 한층 더 노력하고 방역 관리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일별/누적 확진자 현황 (2020.3.9. 00:00 기준)



대구·경북지역 제외한 일일 신규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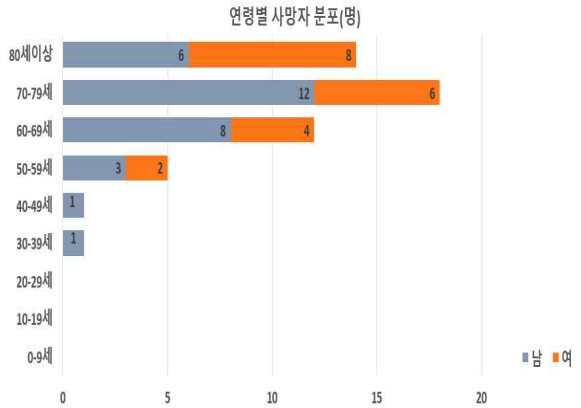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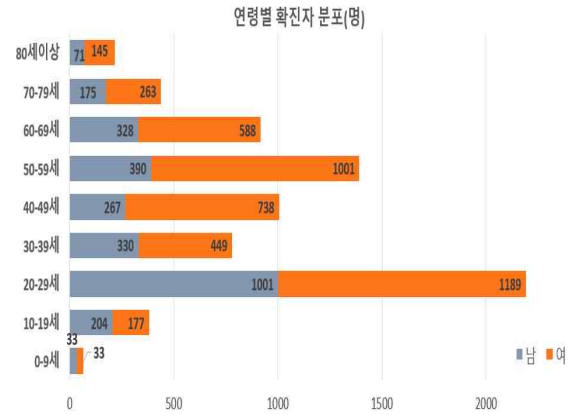
대구·경북지역 제외한 일일 누적 확진자 현황

- * 대구·경북지역을 제외한 국내 확진자 현황에 따르면, 경기·서울·충남·부산·경남 등 지역별 집단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 * 고위험군이 많이 있는 의료기관(기저질환 다수), 사회복지시설(고령자 다수), 종교시설 등 중심으로 집단발생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지역별로 해당 시설 기관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2020.3.9. 0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현황

구분	확진자 (%)	사망 (%)	치명률(%)	
계	7,382 (100.0)	51 (100.0)	0.7	
성별	남성	2,799 (37.9)	31 (60.8)	1.1
	여성	4,583 (62.1)	20 (39.2)	0.4
연령	80세 이상	216 (2.9)	14 (27.5)	6.5
	70-79	438 (5.9)	18 (35.3)	4.1
	60-69	916 (12.4)	12 (23.5)	1.3
	50-59	1,391 (18.8)	5 (9.8)	0.4
	40-49	1,005 (13.6)	1 (2.0)	0.1
	30-39	779 (10.6)	1 (2.0)	0.1
	20-29	2,190 (29.7)	0 (0.0)	-
	10-19	381 (5.2)	0 (0.0)	-
	0-9	66 (0.9)	0 (0.0)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 국내 확진자는 7,382명, 사망자는 51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치명률은 0.7%로 확인됨.

✓ 성별 분포 현황

* 성별로는 확진자에서 여성이 4,583명(62.1%)으로 남성 2,799명(37.9%)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사망자의 경우에는 남성이 31명(60.8%)으로 여성 20명(39.2%)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성별에 따른 치명률은 2,799명의 확진자 중 31명이 숨진 남성에서 1.1%로 여성 0.4%보다 높은 치명률을 보임.

✓ 연령별 분포 현황

* 확진자의 연령대는 20대에서 2,190명(29.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50대 1,391명(18.8%), 40대 1,005명(13.6%), 60대 916명(12.4%) 순으로 나타남.

* 사망자의 경우 확진자의 연령대와는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44명(86.3%)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연령대별 치명률은 216명의 확진자 중 14명이 숨진 80세 이상이 6.5%, 70대가 4.1%로, 여전히 7080 고령층에서 높은 치명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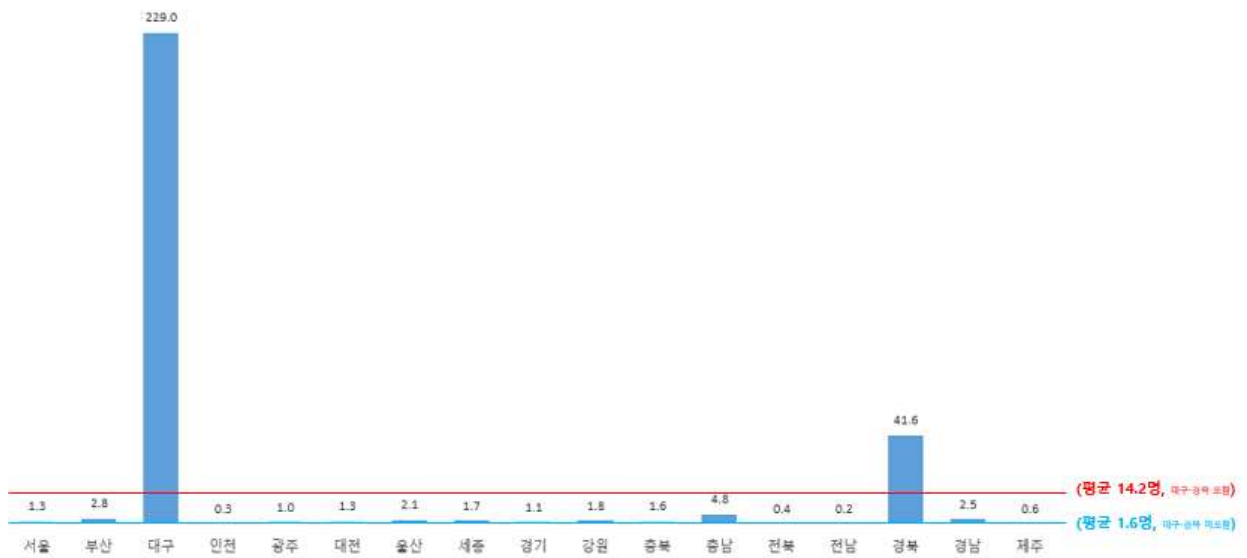
– 국내 코로나19 인구비례 확진자수 (2020.3.9. 00:00 기준)

지역	확진자수	(%)	사망자	치명률	발병률	지역	확진자수	(%)	사망자	치명률	발병률
서울	130	(1.8)			1.3	경기	152	(2.1)	1	0.7	1.1
부산	96	(1.3)			2.8	강원	28	(0.4)	1	3.6	1.8
대구	5,571	(75.5)	35	6.2	228.6	충북	25	(0.3)			1.6
인천	9	(0.1)			0.3	충남	102	(1.4)			4.8
광주	15	(0.2)			1.0	전북	7	(0.1)			0.4
대전	19	(0.3)			1.3	전남	4	(0.0)			0.2
울산	24	(0.3)			2.1	경북	1,107	(15.0)	14	1.3	41.6
세종	6	(0.1)			1.8	경남	83	(1.1)			2.5
						제주	4	(0.0)			0.6
						총합계	7,382	(100.0)	51	0.7	14.2

*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 발병률=확진자수/인구수*1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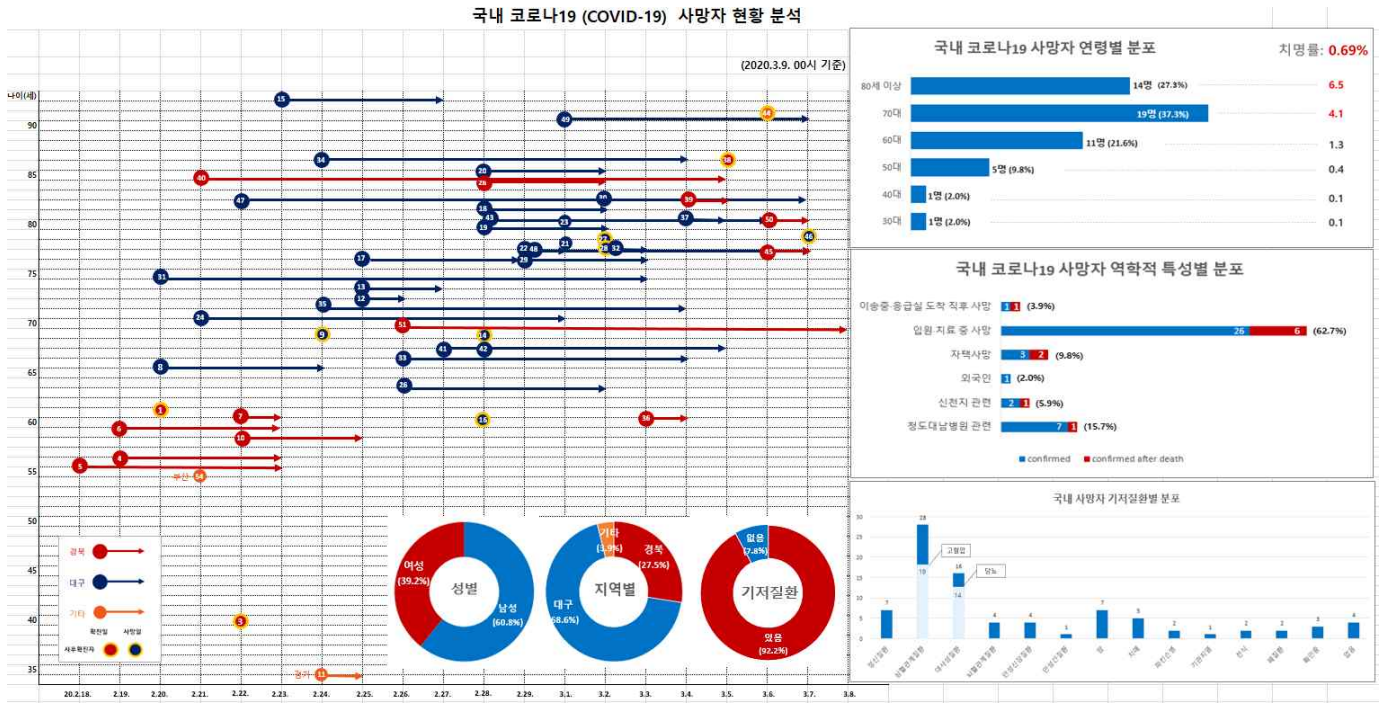
국내 코로나19(COVID-19) 인구 10만명당 발병율

(단위: 명)



국내 코로나19 인구비례 확진자수

-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2020.3.9. 00:00 기준)



국내 코로나19 (COVID-19) 사망자 현황 분석

- * 국내 사망자는 **60세 이상이 86.2%**를 차지하며, 사망자들은 확진일로부터 **평균 4일 뒤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 * 국내 사망자는 51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1명 추가)으로 **치명률은 0.69%**로 보고되었으며, 3.4.부터 현재까지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는 4명으로** 확인됨.

✓ **성별·지역별 분포 현황**

- * 성별로는 **남성이 31명(60.8%)**으로 여성 20명(39.2%)보다 많았고, 사망자는 **대구 35명(68.6%), 경북 14명(27.5%)**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기타 2명(3.9%)*은 각각 경기, 강원지역에서 발생함.
(* 2번째 사망자: 청도대남병원 확진 판정 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 소관 정정(부산→경북)에 따른 수정)

✓ **연령별 분포 현황**

- * 연령대는 **70대에서 19명(37.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80세 이상 14명(27.3%), 60대 11명(21.6%), 50대 5명(9.8%), 40대 및 30대 각각 1명(2.0%)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치명률은 216명의 확진자 중 14명이 숨진 **80세 이상이 6.5%**, 70대가 4.1%로, 여전히 7080 고령층에서 높은 치명률을 보임.

✓ **기저질환별 분포 현황**

- *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51명 중 **92.2%**가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심혈관계질환이 28명(56.0%)**, 그 중 **고혈압이 19명(37.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대사성질환 16명(32.0%), 정신질환 및 암 각각 7명(14.0%), 치매 5명(10.0%) 순으로 확인됨(기저질환 중복 반영됨).
- * 3.4.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는 4명으로 보고되었으며,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확인됨.

✓ **사망관련 역학적 특성**

- * 국내 코로나19 사망자의 역학적 관계로 보면 초기 사망자의 경우 **청도대남병원 및 신천지대구교회**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3.9. 00시 기준으로 **입원·치료 중 사망 관련 32명(62.7%)**, **청도대남병원 관련 8명(15.7%)**, **자택사망 5명(9.8%)**, **신천지 관련 3명(5.9%)** 순으로 나타남.
(※ 이 중 사후확진을 받은 사망자 11명은 입원·치료 중 사망 6명, 자택사망 2명, 이송중응급실 도착 직후 사망 및 신천지, 청도대남병원 관련 각 1명으로 확인됨)
- * 기저질환이 없는 대다수의 사망자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나타나며, 고령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감염병에 걸리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됨.

● **코로나19 신천지 전수조사 현황 (2020.3.9.기준)**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3.9.\)](#)

전국	신천지 교인	309,726명	
	조사대상자*	195,612명	
	전수조사(유선)	192,634명	99.0% 완료
	확진 판정	4,617명	62.5% (전국 확진자 대비 확진률)
대구	신천지 교인**	10,471명	
	전수조사(유선)	10,471명	100% 완료
	진단검사	10,220명	97.6% 완료
	확진 판정	4,137명	40.4% (확진 양성률)
경북	신천지 교인**	6,549명	
	전수조사(유선)	6,524명	99.6% 완료 (신도 100%, 예비신도 98%)
	진단검사	6,011명	92.1% 완료
	확진 판정	496명	8.3% (확진 양성률)

* 조사대상자: 미성년자(16,680명), 교육생(65,127명), 주소지불명(863명), 해외신도(31,894명) 제외 (단, 지자체별 교육생 포함된 지자체도 있음)

** 신천지 확보 명단 중 군복무자, 해외 체류자, 타 시도 거주자 등 이관작업 실시 후 기존 10,914명에서 443명 줄어든 10,471명으로 관리대상자 조정됨.

** 신천지 교인(6,549명): 일반신도(5,269명)+예비신도(1,280명)으로 보고됨.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3.9.\)](#)

(출처) [대구광역시 정례브리핑\[22보\] 2020.3.9.\(월\) 10:30](#)

(출처) [20.3.9.\(월\) 코로나19 대응 경상북도 정례브리핑자료](#)

- * 대구·경북지역의 신천지 신도에 대한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신천지 교인에 대한 확진자 수는 다소 감소 추세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안정화 초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 다만, 병원,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과 일반시민의 등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가 필요함.

● **국내 지역별 코로나19 집단발생 주요 이슈**

✓ (경기) 분당제생병원 확진자(13명) 발생 (출처)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3월 9일 정례브리핑](#)

- 3.9. 기준 경기도 소재 분당제생병원에서 확진자 13명(입원환자 6명,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종사자 6명, 보호자 1명)이 확진 판정됨.
- 응급실과 검사실에서 바이러스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접촉자는 517명(입·퇴원 환자 209명, 보호자 69명, 직원 239명)으로 확인됨.
- 3.5. 기준 첫 확진환자 발생 당시 입원환자 349명, 직원 1,441명, 보호자 및 용역직원 203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확진자 노출기간 내 접촉자 중 퇴원한 환자 141명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시행중임.

✓ (충남) 천안시운동시설 관련 확진자(92명) 발생 (출처) [중앙일보](#)

- 충남도와 천안·아산시는 확진자 102명 가운데 92명이 줌바댄스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줌바댄스 강사 4명, 수강생 54명, 강사·수강생의 가족·지인 34명으로 총 92명이 확진 판정됨.
- 2.15. 천안에서 열린 줌바댄스 강사 워크숍을 주목하여 서울·대전·대구·세종·경기 등 타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진자를 중심으로 동선 및 접촉자 등 역학조사 진행중임.

✓ (충북) 괴산군 경로당 확진자(10명) 발생 (출처) [뉴시스](#)

- 충북 괴산군 소재 오가리 시골마을 내 200여명 입주하고 있으며, 3.4. 기준 지역내 경로당에서 확진자 10명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 후 심층조사를 실시함.
- 3.8. 기준 충청북도 자체 괴산군 장연면 일대를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마을 전체 코호트 격리 조치 및 검체 검사 실시함.

✓ (경남) 창녕 동전노래방 확진자(7명) 발생 (출처) [\[3월 9일 오전 브리핑\]코로나19 경남 현황 및 방역방안 안내](#)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소재 노래방에서 확진자 7명이 발생된 후 추가 발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2.15~2.25. 창녕 소재 동전노래방 방문자와 접촉자는 총 389명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321명을 검사 실시 하였으며 4명 확진 판정, 315명 음성 판정, 2명 검사진행 중으로 보고됨.

● 전 세계 발생 현황

- 3,857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110,055명(전일 대비 3.63% 증가)으로 보고됨.
- 이 중 3,828명(87명 추가) 사망하여 치명률은 3.48%로 확인됨.
- 발생국가 및 지역 101개(이집트 크루즈, 미국 크루즈 제외)에서 103개(*방글라데시, 알바니아)로 증가됨.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 3. 9. 16:00) (출처) 위키피디아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사망자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사망자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사망자
1	중국	80,735	3,119	36	레바논	32	0	71	불가리아	4	0
2	한국	7,382	51	37	포르투갈	30	0	72	몰디브	4	0
3	이탈리아	7,375	366	38	베트남	30	0	73	세네갈	4	0
4	이란	6,566	194	39	브라질	25	0	74	방글라데시	3	0
5	프랑스	1,209	19	40	핀란드	23	0	7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	0
6	독일	1,040	0	41	팔레스타인	22	0	76	룩셈부르크	3	0
7	스페인	673	17	42	아이랜드	21	0	77	몰타	3	0
8	미국	576	22	43	알제리	20	0	78	북마케도니아	3	0
9	일본	502	7	44	러시아	17	0	79	남아프리카공화국	3	0
10	스위스	337	2	45	오만	16	0	80	알바니아	2	0
11	영국	273	3	46	슬로베니아	16	0	81	카메룬	2	0
12	네덜란드	265	3	47	카타르	15	0	82	라트비아	2	0
13	스웨덴	203	0	48	루마니아	15	0	83	모로코	2	0
14	벨기에	200	0	49	에콰도르	14	0	84	튀니지	2	0
15	노르웨이	176	0	50	조지아	13	0	85	캄보디아	2	0
16	싱가포르	150	0	51	아르헨티나	12	1	86	아르메니아	1	0
17	홍콩	114	3	52	크로아티아	12	0	87	부탄	1	0
18	오스트리아	104	0	53	사우디아라비아	11	0	88	콜롬비아	1	0
19	말레이시아	99	0	54	폴란드	11	0	89	요르단	1	0
20	바레인	85	0	55	필리핀	10	1	90	리히텐슈타인	1	0
21	호주	80	3	56	에스토니아	10	0	91	리투아니아	1	0
22	그리스	73	0	57	마카오	10	0	92	몰도바	1	0
23	쿠웨이트	64	0	58	아제르바이잔	9	0	93	모나코	1	0
24	캐나다	64	0	59	칠레	8	0	94	나이지리아	1	0
25	이라크	60	6	60	헝가리	7	0	95	파라과이	1	0
26	아이슬란드	58	0	61	멕시코	7	0	96	세르비아	1	0
27	태국	50	1	62	페루	6	0	97	토고	1	0
28	이집트	49	1	63	벨라루스	6	0	98	우크라이나	1	0
29	대만	45	1	64	파키스탄	6	0	99	바티칸시국	1	0
30	아랍에미리트	45	0	65	인도네시아	6	0	100	안도라	1	0
31	인도	40	0	66	코스타리카	5	0	101	네팔	1	0
32	이스라엘	39	0	67	도미니카공화국	5	0	102	스리랑카	1	0
33	덴마크	37	0	68	뉴질랜드	5	0	103	일본 크루즈	696	7
34	산마리노	36	1	69	슬로바키아	5	0		합계	110,055	3,828
35	체코	32	0	70	아프가니스탄	4	0			치명률 3.48%	

No.	국가 및 지역	사망자 수	치명률	발병율
1	이라크	6	10.00	0.16
2	이탈리아	366	4.96	12.20
3	중국	3,119	3.86	5.80
4	미국	22	3.82	0.78
5	호주	3	3.75	0.32
6	이란	194	2.95	8.03
7	스페인	17	2.53	1.44
8	프랑스	19	1.57	1.80
9	일본	7	1.39	0.40
10	한국	51	0.69	1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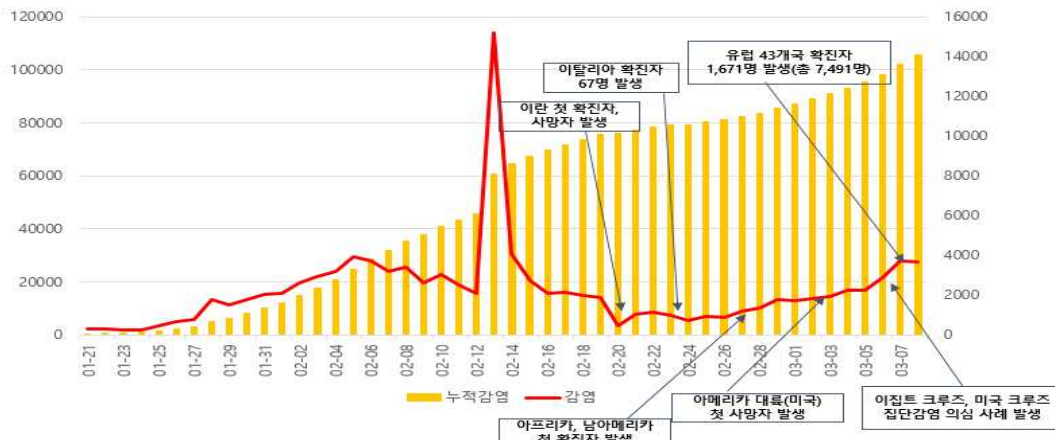
코로나19 치명률 현황 (2020. 3. 9. 16:00 기준)
(출처) 위키피디아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치명률	발병율
전 세계	105,586	3,584	3.39	1.36
중국	80,859	3,100	3.83	5.63
중국 외 국가	24,727	484	1.96	0.39
서태평양	7,928	60	0.76	
유럽	9,450	255	2.70	
동남아시아	93	1	1.08	
중동	6,180	149	2.41	
아메리카	348	12	3.45	
아프리카	27	0	0	

*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발병률=확진자수/인구수*10만

전 세계 코로나19 치명률 현황 (2020. 3. 8.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전 세계 코로나19 (COVID-19) 추이



전 세계 코로나19 추이 현황 (2020. 3. 8.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코로나19 기온과 관련된 논란

찬성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산대학 연구팀 : 코로나 19는 8.72℃에서 가장 빨리 전파(8.72℃이상에서 확산세 둔화) * 홍콩대 퀸메리병원 : 코로나19와 비슷한 구조인 사스는 기온38도, 습도95% 이상의 환경에서 급격히 소멸 * 레바논 전염병 연구센터 : 기온이 올라가면 바이러스의 안정성도 낮아짐 * (국내) 중앙 임상 TF : 날씨가 따뜻해지는 여름에는 확실히 끝날 것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버드대 전염병역학센터 소장 : 코로나19는 다양한 조건에서 지속해서 급속도로 전파되어 계절성 경향을 갖고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움 * WHO 긴급대응팀장 :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응해야함 * (국내) 질병관리본부장 : 신종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떤 패턴을 보일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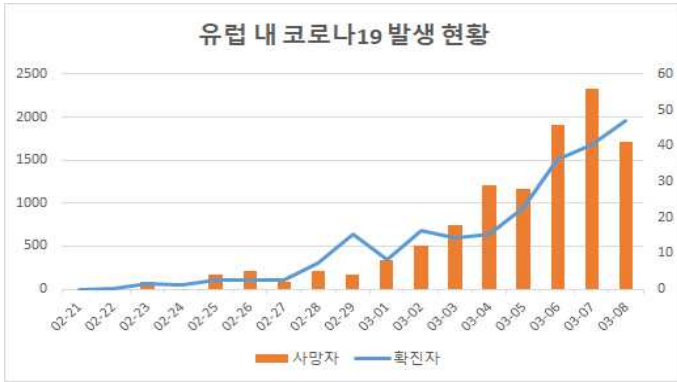
(출처) [Newsis](#), [BreakNews](#)



코로나19 확산 현황 (출처) [2019-nCoV Global Cases \(by Johns Hopkins CSSE\)](#)

● **중국 외 국가별 발생 현황** (2020. 3. 8.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확진환자 24,727명(전일 대비 3,610명 추가, 15.0% 증가)으로 보고됨.
- 사망자 484명(전일 대비 71명 추가)로 보고되어, 중국 외 국가의 치명률은 1.96%(전일 1.96%)확인됨.



✓ **유럽 전역 확산**

- **이탈리아** : 하루에 1,492명 확진자 발생
 - * 확진자 7,375명(전일대비 1,492명 상승), 사망자 366명 발생함.
 - * 북부 지역 격리조치, 전국의 학교, 체육관, 박물관, 클럽, 대로 등을 4월 3일까지 폐쇄하기로 함.
 - * 인구 1,000만명이 사는 롬바르디의 의료체계는 미비하여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 * 다음 14개 지역에도 같은 조치 적용 - 모데나, 파르마, 피아첸차, 레조, 에밀리아, 리미니, 페사로에우르비노, 알레산드리아, 아스티, 노바라, 베르바노 쿠시오 오솔라, 베르첼리, 파두아, 트레비소와 베네치아



- **프랑스** :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 발생
 - * 1,209명(전일 대비 260명, 27.4% 상승)확진자
 - * 코로나19경보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프랑스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는 대유행을 의미)로 상향 조정중.
 - * 북부 우아즈주, 북동부 오랭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 * 학교와 요양시설, 유치원 모두 2주간 잠정 폐쇄.



- **독일** : 확진자 1,040명
 - *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설치 - 의사 크레취만은 한국에서의 관련 진료 방식을 알게 되어 현지에 착안함. 헤센주 마부르크, 그로스-게라우 지역에서 운영 중임. 사전에 등록된 시민을 대상으로 검진함.

(출처) [BBC](#),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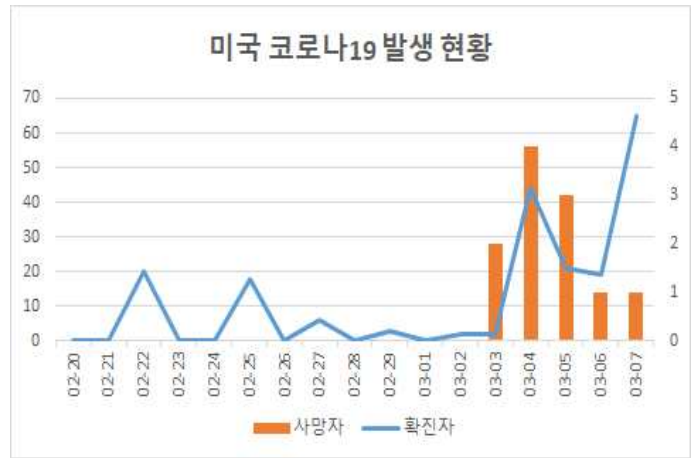


유럽 지역 코로나19 발생 현황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미국 - 코로나19 대응 단계 '억제'에서 '완화' 단계로 격상



미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출처) [CDC](#)



미국 코로나19 발생 현황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 35개 주에서 발생(확진자 수 512명, 사망자 22명)
 - * 코로나19로 비상령을 내린 주 - 워싱턴,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켄터키, 메릴랜드, 유타
 - * 워싱턴주의 신규 사망자 2명(80대 여성 한명과 90대 남성 한명)은 커클랜드의 장기요양 시설(16명 사망) 입소자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던 중 사망함. 시설 직원 70명이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인근의 다른 요양시설에서 확진자 발생함.
 - * 미국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19환자 많은 주 - 뉴욕
 - * 두 번째 확진자가 있었던 웨스트체스터카운티에서 82명 발생함.
 - * 워싱턴DC 첫 확진자 발생함. 목사로 확인되어 보건국은 잠정적인 예배중단 권고하고 예배는 취소됨.
- (출처) [CNN](#), [WP](#), [연합뉴스](#)

✓ 동남아시아에 코로나19 급속 확산 시작



- * **캄보디아** : 39일 만에 확진자 발생함. 동남아시아 여행 (필리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후 일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일본인과 접촉함. 접촉자 48명이 시설 또는 자가 격리 중임.
- * **베트남** :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유럽여행을 다녀온 베트남 여성(지난 6일) 거주 지역 주변 도로 봉쇄 대구 여행 후 지난 4일 부산발 여객기로 귀국한 베트남 남성 확진 판정받음(지난 7일).
- * **싱가포르** : 식당 만찬행사와 관련해 21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 중임.
- * **태국** : 이탈리아 출장을 다녀온 6명 중 2명이 확진임.
- * **말레이시아** : 지난 1월 상하이에 다녀온 남성의 접촉자들에게 대한 역학조사 중 18명이 확진 판정 받음.

동남아시아 코로나19 발생 현황 (출처) [WHO Situation Report](#) (출처)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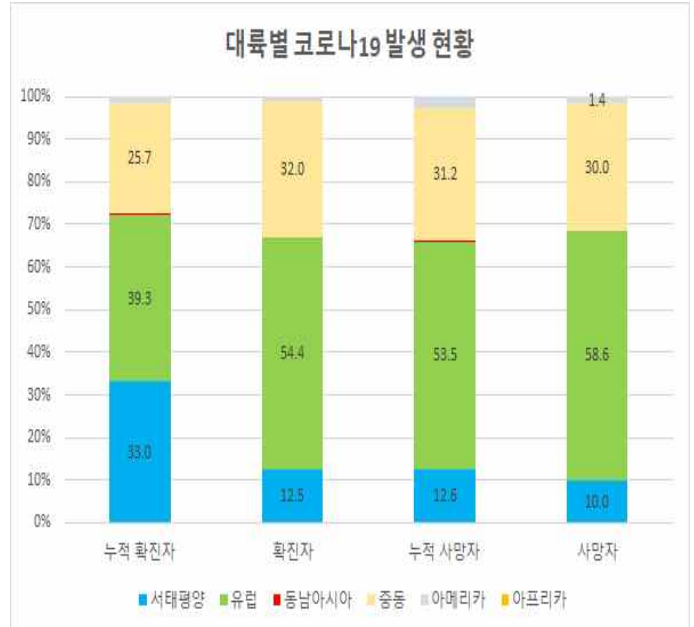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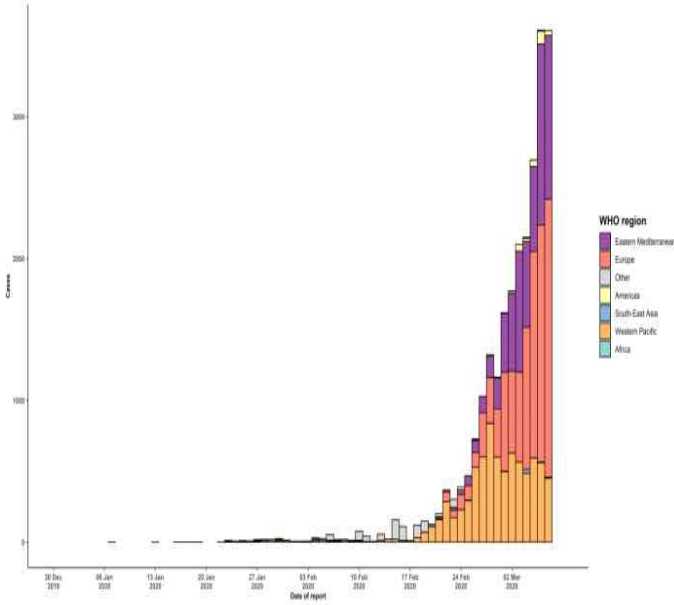
중국 외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 3. 8.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국가/지역	확진 환자 수	확진환자 (신규)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신규)	감염경로	마지막 날부터 보고 된 일수
서태평양						
한국	7,134	367	50	6	*지역 전파	0
일본	455	48	6	0	*지역 전파	0
싱가포르	138	8	0	0	*지역 전파	0
말레이시아	93	10	0	0	*지역 전파	0
호주	74	12	3	1	*지역 전파	0
베트남	21	4	0	0	*지역 전파	0
뉴질랜드	6	1	1	0	*지역 전파	0
필리핀	5	0	0	0	*지역 전파	1
캄보디아	2	1	0	0	*지역 전파	0 ⁸
유럽						
이탈리아	5,883	1,247	234	37	*지역 전파	0
독일	795	156	0	0	*지역 전파	0
프랑스	706	93	10	1	*지역 전파	0
스페인	430	56	5	0	*지역 전파	0
스위스	264	55	2	1	*지역 전파	0
영국	210	43	2	1	*지역 전파	0
네덜란드	188	60	1	0	*지역 전파	0
벨기에	169	60	0	0	*지역 전파	0
스웨덴	161	24	0	0	*지역 전파	0
노르웨이	147	34	0	0	*지역 전파	0
오스트리아	104	38	0	0	*지역 전파	0
그리스	66	34	0	0	*지역 전파	0
아이슬란드	45	0	0	0	*지역 전파	1
덴마크	31	8	0	0	*지역 전파	0
산마리노	27	3	1	1	*지역 전파	0
체코	26	14	0	0	*지역 전파	0
이스라엘	25	6	0	0	*지역 전파	0
포르투갈	21	8	0	0	*지역 전파	0
핀란드	19	0	0	0	*지역 전파	1
아일랜드	19	1	0	0	*지역 전파	0
루마니아	13	6	0	0	*지역 전파	0
조지아	12	3	0	0	해외 유입	0
슬로베니아	12	3	0	0	*지역 전파	0
크로아티아	11	0	0	0	*지역 전파	1
에스토니아	10	0	0	0	해외 유입	1
아제르바이잔	9	0	0	0	해외 유입	1
헝가리	4	3	0	0	*지역 전파	0
러시아	4	0	0	0	해외 유입	1
벨라루스	6	0	0	0	*지역 전파	3
폴란드	6	1	0	0	해외 유입	0
몰타	3	3	0	0	해외 유입	0
북마케도니아	3	0	0	0	해외 유입	1
슬로바키아	3	2	0	0	*지역 전파	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	0	0	0	*지역 전파	3
불가리아	2	2	0	0	*지역 전파	0
룩셈부르크	2	0	0	0	해외 유입	1
안도라	1	0	0	0	해외 유입	5
아르메니아	1	0	0	0	해외 유입	6
바티칸시국	1	0	0	0	조사중	2
라트비아	1	0	0	0	해외 유입	5
리히텐슈타인	1	0	0	0	해외 유입	2
리투아니아	1	0	0	0	해외 유입	9
모나코	1	0	0	0	조사중	7
몰도바	1	1	0	0	해외 유입	0
세르비아	1	0	0	0	조사중	2
우크라이나	1	0	0	0	해외 유입	4

중국 외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 3. 8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국가/지역	확진 환자 수	확진환자 (신규)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신규)	감염경로	마지막 날부터 보고 된 일수
영토국						
패로체도	1	0	0	0	해외유입	2
지브롤터	1	0	0	0	조사중	4
동남아시아						
태국	50	2	1	0	*지역 전파	0
인도	34	3	0	0	*지역 전파	0
인도네시아	4	0	0	0	*지역 전파	1
몰디브	2	2	0	0	*지역 전파	0
부탄	1	0	0	0	해외 유입	2
네팔	1	0	0	0	해외 유입	44
스리랑카	1	0	0	0	해외 유입	41
중동						
이란	5,823	1,076	145	21	*지역 전파	0
쿠웨이트	62	4	0	0	해외 유입	0
바레인	56	7	0	0	해외 유입	0
이라크	54	10	4	0	해외 유입	0
이집트	48	45	0	0	*지역 전파 ^{SS}	0
아랍에미리트	45	0	0	0	*지역 전파	1
레바논	28	6	0	0	해외 유입	0
오만	16	0	0	0	해외 유입	2
카타르	12	1	0	0	해외 유입	0
사우디아라비아	7	2	0	0	해외 유입	0
파키스탄	5	0	0	0	해외 유입	5
아프가니스탄	4	3	0	0	해외 유입	0
모로코	2	0	0	0	해외 유입	3
요르단	1	0	0	0	해외 유입	5
튀니지	1	0	0	0	해외 유입	5
영토국						
팔레스타인	16	0	0	0	*지역 전파	1
아메리카						
미국	213	0	11	0	*지역 전파	1
캐나다	57	6	0	0	*지역 전파	0
브라질	19	6	0	0	*지역 전파	0
에콰도르	14	0	0	0	해외 유입	1
아르헨티나	9	7	1	1	해외 유입	0
멕시코	7	2	0	0	해외 유입	0
페루	6	0	0	0	*지역 전파	1
칠레	5	0	0	0	해외 유입	1
코스타리카	5	5	0	0	해외 유입	0
콜롬비아	1	0	0	0	해외 유입	1
도미니카공화국	1	0	0	0	해외 유입	6
영토국						
프랑스령 기아나	5	5	0	0	해외 유입	0
마르티니크	2	2	0	0	해외 유입	0
세인트마틴섬	2	0	0	0	조사중	5
성 바르톨로메오	1	0	0	0	조사중	5
아프리카						
알제리	17	0	0	0	*지역 전파	1
세네갈	4	0	0	0	해외 유입	3
카메룬	2	0	0	0	*지역 전파	1
남아프리카공화국	2	1	0	0	해외 유입	0
나이지리아	1	0	0	0	해외 유입	9
토고	1		0	0	해외 유입	1
기타						
일본 크루즈	696	0	7	1	*지역 전파	0
총 합	24,727	3,610	484	71		

- * 현재 대한민국은 입국제한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중국(홍콩, 마카오)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과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구분하고 있음.
- * 지역전과 52개국(전일 45개국)으로 증가하였음.
 - § 39일 동안 신규 확진자 없는 상태를 유지하다 8일 신규 확진자 발생함.
 - §§ 이집트 국제 해역에 있는 나일 유람선을 제외하고 해외유입으로 분류됨.



중국 외 지역의 유행 곡선 (2020. 3. 8.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서울시, 자치구 역학조사 강화 바로 방역조치...코로나19 역학조사 체계 개편

- 서울시는 코로나19 환자를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 환자의 최초 접점인 '자치구 역학조사 활동을 확대'하고, 시 차원의 '즉각대응반' 지원을 강화하는 역학조사 체계 개선을 추진함
 - *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보건소의 기초역학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코로나19 대응지침(제7판)을 개정함
- (기존)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최초인지 보건소가 기초 역학조사를 실시해 서울시에 보고한 뒤 시 역학조사관이 심층역학조사를 실시
 - * 그간 최초인지 보건소는 심층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최초 증상 발현일 1일전부터의 확진자 이동동선을 확인, 현장에 출동하여 접촉자 의심자 인터뷰, CCTV 확인 등을 통해 접촉자 조사를 실시함
 - * 시는 보건소 현장 상황실이 설치되면 시 역학조사관을 직접 현장상황실에 파견하여 최초 증상 발현일과 확진환자의 접촉자 조사 범위를 설정하는 판단을 지원하고, 민생사법경찰단 등 현장역학조사요원과 DB 관리 등 기술 지원을 위한 인력 등을 제공해 왔음
- (강화)자치구 보건소의 역할을 강화해, 확진판정시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바로 후속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
 - * 최초 인지 보건소는 즉각적인 기초역학조사와 접촉자 조사 및 관리를 시행하고, 시는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노출력이 있거나, 집단 발생이 의심될 경우에 '즉각대응반'을 즉시 구성해 지원
- 또한, 시는 '즉각대응반' 가동뿐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반, 자료분석반, 전문가 자문단 등을 신설, 운영할 계획임
 - * 기술지원반은 권역별(5개)로 담당 역학조사관을 지정해 자치구 역학조사에 필요한 기술 자문에 응하고, 자치구 현장조사를 지원하면서 조사기법을 전수
 - * 자료분석반은 GPS 등 전산자료를 조회, 분석하여 환자의 동선 정보 등을 신속히 제공
 - * 전문가 자문단은 집단시설 및 유행사례 발생 시 감염경로를 추정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
- 시는 자치구 역학조사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별 역학조사관을 확대하고 교육을 실시해 역학조사관을 배정한 상태임
 - * 자치구 역학조사관은 확진환자 인터뷰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확진자 이동경로에 따라 현장 역학조사로 접촉자를 우선 파악하며 24시간 이내에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는 등 그 역할이 대폭 강화됨
 - *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 보건소별로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 1명 이상을 추천 받아 관련 교육을 실시(2.29), 이들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해당 자치구에 배정함
- 시는 자치구 역학조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서울시 역학조사관과 함께 실습하고, 지역간 효율적 협력을 위해 인접 자치구간 역학조사관들이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속적으로 지역방역 역량을 강화할 예정임

● 서울시, 신천지 법인의 취소 전 종합 현장 실태조사 착수

- 서울시는 3월9일(월) 9시30분에 동작구 상도동에 소재한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주사무소를 방문하여 법인의 업무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 *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에 기 등록되어 있는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종교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현황과 신도 명단 등의 보장자료를 파악하여 방역대책에 활용하기 위한 것
 - * 아울러 ▲검체채취반도 동행하여 근무자의 증상유무에 따라 필요시 검체채취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임
- 이번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및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로
- 실태조사에서 조사할 내용은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정관, 임직원 명부와 이력서, 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등,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등 각종 서류와 장부의 비치여부임

- 서울시는 동 법인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내 소재한 신천지 관련 각종 시설에 대한 정보와 신천지 신도들에 관한 정보도 있다면 최대한 확보하여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임
 - *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현재의 사무소는 서울시의 신천지 관련 시설폐쇄 조치에 따라 이미 폐쇄되어 있으나, 실태조사 당일 은 현장조사를 위해 폐쇄를 풀고 조사 후 다시 폐쇄 예정임

● 서울시, 코로나19 대비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비상 재택근무 기반 구축

- 서울시가 코로나19 심각에 따른 청사폐쇄 상황 발생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스마트 재택근무 인프라**인 SVPN을 확대 구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재택근무 범위를 늘려 나갈 계획**임
 - * ‘SVPN(Smart Seoul Virtual Private Network)’: 온라인 원격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에서 사무실과 같이 행정시스템에 안전하게 접속하도록 인터넷 회선을 암호화한 통신망 보안솔루션
 - * 시청 사무실 밖에서 내부 행정시스템에 접속할 때 SVPN을 통해 접속하면 해킹, 바이러스 등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고 높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을 유지한 채 업무를 할 수 있음
- 그간 SVPN은 500명 규모의 인원을 수용하는 용량이었으나, 이번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시청사를 폐쇄하는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용량을 대폭 늘림**
 - * 수용 용량 10,000명은 청사 폐쇄 시 본청 직원은 물론 대부분의 사업소 직원까지 수용가능한 용량임
- SVPN과 같은 재택근무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택근무제 참여도 확대해 나갈
 - * 먼저, 서울시 스마트도시 정책을 총괄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정책관 소속 전 직원의 90% 이상(186명)이 '20.3.4(수)부터 교대형으로 참여하여 재택근무 실행 모델을 마련 중에 있음
 - *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알기 쉬운 SVPN 설치 매뉴얼 배포, 장애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직원 보안관리 능력 강화 등을 지원하여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예정임
- '20. 3. 9(월)부터 부서별 실정에 맞춰 재택근무 참여 범위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며, 시청 직원 뿐만 아니라 서울디지털재단을 비롯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도 재택근무를 확대 도입 중에 있음
- 또한, 시는 효율적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화상회의를 확대 도입** 중에 있음
 - * 서울시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종합 플랫폼인 디지털시민시장실을 화상회의의 대표 플랫폼으로 활용, 디지털시민시장실에 민간의 화상회의시스템을 연계하여 자치구청장 회의, 투자출연기관장 회의 등 각종 회의에 적극 도입될 예정임
 - * 1개 디지털시민시장실 별로 최대 30개 기기가 연결 가능하며, 노트북·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대면회의의 소집이 어려운 외부 전문가 및 기관 관계자의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
 - * 특히 25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자치구청장, 투자출연기관장 회의와 같이 참석자가 많은 회의는 회의실 준비, 자료 인쇄 등 물리적·행정적 소모가 다소 있었으나, 화상회의 도입 시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 부서, 팀 이하의 단위에는 행정포털 메신저 화상회의, 행정안전부의 온나라이움 협업시스템이나 민간의 다양한 화상회의 플랫폼 적극 도입하여, 재택근무의 내실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 서울시설공단, 9일부터 분리근무 시범실시, 코로나19 대응 필수 인력 확보 및 공공서비스 공백 사전 차단

- 서울시설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직원감염으로 인한 업무단절이 없도록 하기 위해 9일부터 직원들의 분리근무를 시범적으로 시행함
- 대시민 필수서비스 기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내 가용 사업공간 활용한 직원 분산 근무 및 자택 근무 시행하는 것을 결정, 우선 742명에 대한 분리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함
- (분산 배치)3·4월이 해빙기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위한 업무 수요 증가, 시민 안전을 위한 중단 할 수 없는 업무 감안, 해빙기 시설물 안전 관련 직원 77명 별도 공단 내 업무공간 활용해 분산 배치
- (재택근무)참여인원 665명은 3개조가 2일씩 사무실 및 자택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진행. 재택근무 인력은 가상사설망(VPN) 시스템을 비롯해 사내 메신저, 사내 메일, 휴대폰 착신 전환 등을 통해 업무

● **경북지역 방역관리 현황 및 조치사항**

- 3월 9일(월) 0시 기준 경북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는 총 1,107명임
 - * 경북 지역 확진자 수는 3월 5일 경북 경산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된 이후, 3월 6일 984명(전일 대비 +123명), 3월 7일 1,049명(+65명), 3월 8일 1,081명(+32명), 3월 9일 1,107명(+26명)으로 나타남(※ 질병관리본부 통계 기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상북도는 현재 **경북 지역의 6개 의료기관에 총 1,022개의 병상을 확보**하였으며, 경북도 내 종합병원에 음압병상 추가 확보를 추진 중임
 - *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영주적십자 병원, 상주적십자 병원
- 경북 지역(주로 경상지역) 경증환자 입소가 가능한 국가지정 **생활치료센터는 총 2개소 운영** 중이며, 경북도와 함께 생활치료센터를 늘려나갈 계획임
 - * (국가지정)경북대구3센터(서울대병원인재원), 경북1센터(중소벤처기업 대구경북연수원, 경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시설 및 인력 확보하여 운영 시작 후 국가지정), (도 지정) 31개소 785실 중 97실 사용 중
-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북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위해 의사 22명, 간호사 180명 등 의료인력 총 202명을 지원하였으며(3.8.기준), 3월 9일 신규 공중보건 의사 150명을 추가 배치함
 - * 요양 시설 등에서 발생한 고령·중증 확진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 11명을 지원하였으며, 요양보호사 모집(모집 공고, 3.8.~) 등을 통해 추가지원 추진 중에 있음
 - * 경북 지역에 전신보호복 세트(8만여 개), 호흡기 보호구(13만 개) 등을 지원하였고, 필요한 경우 수량을 파악하여 신속 지원할 예정임

●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9일 오전 8시 기준 **생활치료센터 총 10개소에 총 1,663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했다고 밝힘
 - * ①대구1(중앙교육연수원) 129명, ②경북대구1(삼성인력개발원) 210명, ③경북대구2(농협교육원) 229명, ④경북대구3(서울대병원인재원) 97명, ⑤경북대구4(한티 대구대교구 피정의 집) 68명, ⑥경북대구5(대구은행연수원) 45명, ⑦충남대구1(우정공무원교육원) 308명, ⑧경북1(중소벤처기업 대구·경북 연수원) 57명, ⑨충북대구2(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155명, ⑩대구2(경북대학교 기숙사) 365명
- 전일 대비 센터에는 521명(병원에서 36명, 자가 격리환자 485명)이 추가 입소, 현재까지 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온 경증환자 수는 총 83명임
 - * 충북대구2센터(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대구의료원으로부터 36명 이송 받음
 - * 흉통(호흡곤란 호소), 폐렴(센터내 의료진의 X-RAY 검사 결과) 등으로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 * 완치자 36명(대구1센터 24명, 경북대구1센터 12명) 중 35명 퇴소 조치, 전날 대비 입소자 수는 483명 증가
 - * 완치자 중 1명은 배우자의 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퇴소 보류
- 오늘 **충북대구1센터(제천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와 경북대구7센터(구미 소재 LG디스플레이 기숙사)가 개소**함에 따라 **512명의 환자가 새로이 입소**할 예정임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증 환자들 중 1·2차 검체 채취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퇴소하는 환자들은 계속해서 나올 예정임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할 시도 및 보건소 등과 협조하여 퇴소한 완치자들을 대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임
- 지금까지 지정된 10곳의 생활치료센터에 의사 46명, 간호사 70명, 간호조무사 56명 등 총 18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생활치료센터 경증환자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 자문에 참여하고 있음
 - * 참여 병원: 경북대병원, 삼성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순천향대병원, 인천한림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 병원 내 입원 중이거나 입원 대기 중인 경증 확진환자들의 생활치료센터 수용을 늘리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해당 시·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전망**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발생현황** 공유하고 향후 전망,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방역 전략 등을 함께 논의함**

*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총 96개국에서 10만 1천여 명이 확진되었고, 3천 7백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3.9.기준)

* 코로나19 유행이 시작 된(1~2월 중순) 중국은 감소세이지만, 이후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지역사회 전파 및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 **(일본)**현재까지 5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일본은 홋카이도, 도쿄도 등에서 집단발생이 지속되며 신규환자 증가 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이탈리아)**북부지역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1천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음

* 롬바르디아주를 포함한 북부지역 15개 주에 휴업, 휴교, 이동 제한 등 사실상의 봉쇄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 **(이란)**확진자 수가 약 1천명 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세계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국외로부터의 추가유입 억제 조치 모두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

* 전 세계 유행 확산에 대비해 모든 국가에서 적절한 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중증자 관리를 위한 준비 등 대응과 협력이 중요하다 밝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현황과 과제

김남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01. 서론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우리의 생활을 뒤흔들고 있음. 대구·경북 지역의 클러스터 감염이 발생하고 3월 4일 현재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섬에 따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감염-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코로나감염-19 유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대구 지역에 감염클러스터가 나타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임.
- 현재 코로나감염-19 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코로나감염-19 유행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요구됨.

02. 코로나감염-19의 특성과 발생 추이

[코로나바이러스-19의 특성]

-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과 다양한 동물이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유전자 크기가 27~32kb이며 RNA 바이러스에 해당함.
- 코로나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 시 구형의 형태를 보이며 외부 스파이크(spike) 단백질이 왕관처럼 보인다고 해서 코로나바이러스로 명명되었음.

[사스(SARS), 메르스(MERS)와 비교]

-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China CDC)에서 코로나감염-19의 유행 양상을 분석한 결과, 3개 바이러스 감염증의 임상 증상은 유사하지만 전파력과 치명률(case fatality rate) 측면에서 다른 것으로 나타남.
 - 사스와 메르스는 대부분의 2차 전파가 병원 환경에서 발생, 코로나감염-19는 밀접한 접촉자 간에 전파가 발생하여 가족 간 전염이 많다고 함
 - WHO는 사스 총 확진자 수가 8,096명이고 치명률은 9.6%, 메르스는 총 2,494건이 발생하였고 치명률은 34.4%로 보고하였음. 반면 코로나감염-19는 확진자가 8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고 치명률은 3.4%로 보고되었으나 향후 유행이 확산되면서 치명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2020년 3월 4일 기준)
- 중국 연구진이 제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19는 사스와 다르게 변이되었는데, 스파이크 단백질이 활성화되어 바이러스와 세포막이 결합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고 함. 이와 같은 변이는 코로나바이러스-19의 강한 전파력을 설명하는 기전으로 추정되고 있음.

[국내 코로나감염-19 발생 추이]

- 국내에 코로나감염-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40여 일이 지났음.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전체 환자 수는 3526명, 사망자 수는 22명으로 보고되었으며 당분간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임.

[코로나감염-19 검사 현황과 확진자율 비교]

-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2일 기준으로 약 7만 5792건을 검사하였으며 검사 대비 확진자 비율은 5.6%임. 일본은 2517건을 조사해 검사 대비 확진자 비율이 9.5%, 미국은 472건을 조사해 검사 대비 확진자 비율이 3.2%로 나타났음

03. 코로나감염-19의 대응 현황과 문제점

[대응 현황]

-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대응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에 환자가 나타나기 전부터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였으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역 조치를 하였음.
- 대구·경북 지역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예상하지 못한 감염클러스터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공중보건위기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으며 컨트롤타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되었음.
- 서울과 경기 지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별진료와 격리 등의 조치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위생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세종, 고양시 등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드론을 이용해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지역도 있음. 또한 감염 위험이 높은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음.
- 일반 시민들도 코로나감염-19가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대부분의 시민들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위생 관리 지침을 스스로 실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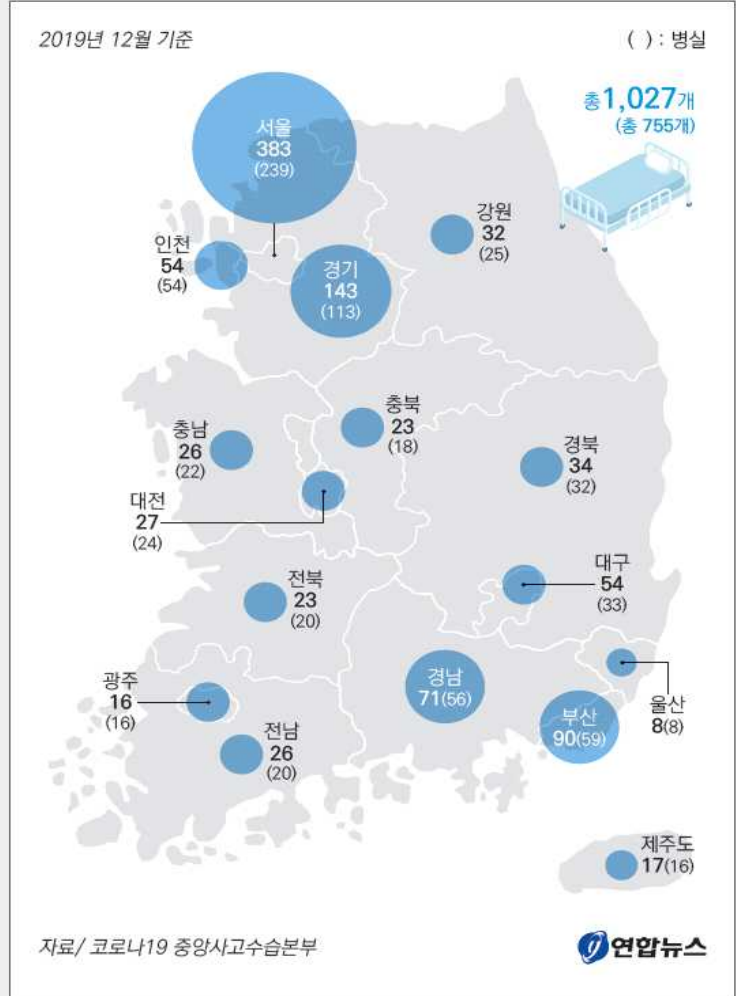
[문제점 진단]

- 메르스 이후 정부가 감염병 인프라를 강화해 왔으나 전국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점이 드러나고 있음. 특히 코로나감염-19 대응 초기부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대표적으로 역학조사관을 살펴보면,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속한 역학조사관은 77명이지만 전문임기제 인력은 32명에 불과한 수준임. 이 같은 조건에서 다수의 즉각대응팀을 운영하다 보니 신속·정확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음.
 - 미국 CDC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1.04명의 공중보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함. 현황 조사 등을 통해 감염병을 전담하는 인력은 2176명으로 추정됨(2017년 기준).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역학조사관의 적정 인력은 348명으로 추정되며, 현재 인원의 3배 정도를 보강해야 되는 수준임.
- 코로나감염-19 확진자 치료와 격리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상도 부족한 상황**임. 2019년 기준으로 국가지정격리병상은 198병상, 민간병원에 있는 병상까지 포함해도 1027병상 수준에 그침. 또한 국내 감염병전문병원으로는 2017년에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병원이 지정된 것이 전부이고 전북, 충북, 강원 지역에는 없는 상황임.

표1. 국가 지정 음압격리병상 현황

지역	총병실 수	총병상 수
강원	6	8
경기	26	28
경남	4	7
경북	3	5
광주	12	12
대구	8	10
대전	8	8
부산	10	10
서울	31	43
울산	5	5
인천	16	16
전남	4	10
전북	8	11
제주	8	9
충남	7	7
충북	5	9
총계	161	198

그림 5. 전국 음압격리병상 현황



자료: 질병관리본부. 시설자원_국가지정 음압 입원치료병상 구축 현황(2019. 3. 기준). www.cdc.go.kr/CDC/cms/content/mobile/56/80856_view.htm. 2020. 3. 2. 인출.
 자료: 연합뉴스. 2020. 2.20 그래픽 자료. 전국 음압병상 보유 현황(2019. 12. 기준) <https://www.yna.co.kr/view/GYH20200220000200044> 2020. 3. 2. 인출.

- 감염병을 전담하는 지역거점병원 및 격리병상은 지역 간 편차가 심한 편이어서, 해당 병원 및 병상이 부족한 지역의 환자를 다른 곳으로 이송하거나 일반 병원을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음.
- 대구 지역은 확진자 수는 폭증하고 있는데 격리병상이 54개에 불과하여 중환자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병원 등으로 이송하고 있음.
- 코로나감염-19 유행 초기에는 모든 확진자를 격리병실에 입원시켜 치료해 왔으나 이제는 트리아지 시스템을 적용하여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는 작업을 해서 중증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하고 환자를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함.
- 코로나감염-19에 대한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공포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나 허위 정보가 언론 보도를 통해 유통되는 현상**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WHO에서도 코로나감염-19에 대한 음모설이나 각종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이른바 ‘인포데믹(infodemic)’ 현상이 팬데믹(pandemic)보다 더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 또한 시민들이 느끼는 과도한 공포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함. 확진자 수, 사망자 수와 같은 기본적 정보 이외에 객관적 분석을 통한 상세한 정보(인구집단 특성별 확진율, 중증으로 악화되는 비율, 기저 질환에 따른 사망률 등)를 제공해 시민들이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04. 향후 대응 과제

[유행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 수립]

- 국내에 첫 코로나감염-19 확진자가 보고된 이래 철저한 검역과 역학조사, 광범위한 접촉자 관리를 통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해 왔음. 하지만 대구·경북 지역의 감염클러스터 발생과 그 영향으로 인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재 **유행 단계에 적합한 대응 전략이 필요함.**
 - 지금까지 코로나감염-19 전파 양상을 분석한 결과, 감염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아 전파 가능성이 높고 밀접한 환경에서 잘 전파된다는 특성이 있음. 따라서 지역사회 전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시민들이 밀접한 환경에서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현재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함.
 - 중앙임상위원회도 “지역사회 전파가 유력한 현 상황에서는 행정·방역체계 및 의료체계의 정비와 함께 범부처 공중보건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안하였음.12) 또한 대구·경북 지역과 같이 의료 자원이 부족한 경우 등에서는 중증도에 따른 의료 자원 이용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음.

[시민이 주도하는 방역]

- 코로나감염-19는 감염 초기에 전파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시민이 주도하는 방역이 필요하여 이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함.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도 가장 **핵심적인 방역 대책은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이를 위해 국민에게 부탁드리는 6가지 수칙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음.
 - 가능한 한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여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함.
 - 개인 위생을 잘 지켜야 하는데, 특히 ‘손 씻기’가 특히 중요함.
 -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3~4일 집에서 경과를 관찰한 후에 안심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함.
 - 민감하고 힘든 시기에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서 힘을 모아야 함.
 - 막연한 소문과 잘못된 정보,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 차별보다는 지역 주민이 서로 신뢰와 연대감을 강화해야 함.
 - 코로나감염-19 치료와 예방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 따라 주고 응원하기 바람.

[인포데믹 차단과 심리 방역]

- 코로나감염-19에 대한 각종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인포데믹이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팩트(fact) 체크를 통해 **가짜 뉴스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코로나감염-19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함께 역학조사, 임상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임.
- **심리 방역**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코로나감염-19 유행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어서 마음건강도 관리가 필요함.
 - 일반 시민들이 감염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도록 하는 도와주는 캠페인과 홍보가 필요하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고립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서로 연대해야 함.
 - 코로나감염-19 확진자나 가족을 포함한 지인 등도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립트라우마센터와 같은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위기상담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

[신종 감염병과의 장기전에 대한 대비]

-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 변화 등의 영향으로 **신종 감염병이 4~5년 주기로 반복해서 유행**하고 있음. 신종 감염병과의 싸움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로서 **앞으로 장기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함.**
 -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과학적 기술과 데이터에 근거한 방역이 되어야 하며, 선제적 방역,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역동적 방역을 한다는 비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과 위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미국 CDC와 같이 세계적 수준의 방역기관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함. 또한 바이러스를 포함한 생물 자원과 백신, 치료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소 설립 추진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감염병 진료를 전담하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음압격리병상과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역량이 부족한 문제와 함께 지역 간 격차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을 검토해야 할 것임.

05. 맺음말

- 코로나감염-19 전파력을 낮추어 신규 환자 발생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정부는 유행 단계에 맞게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시민들도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면서 바이러스 차단에 협력해야 함. 정부와 시민 모두가 서로 믿고 연대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Are high-performing health systems resilient against the COVID-19 epidemic?

Quigely H. L., Asgari N., Teo. Y. Y., Leung. G. M, Oshitani. H., Fukuda. K., et al.

○ 서론

- 일본, 홍콩, 싱가포르 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이 관찰되고 있음. 현재까지 세 국가들에서는 코로나19 조치들을 통해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아 왔음
- 현재까지는 세 국가들의 보건의료 체계가 코로나19 대응을 잘 해온 것으로 보이거나 코로나19 확진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각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성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
- 본 논문은 세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대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건의료체계 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음

○ 코로나19 감시 시스템 (surveillance system) 현황 : 진단검사 역량 강화 및 해외유입 차단

- 일본, 홍콩, 싱가포르 세 국가 모두 국제 공조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능력을 향상 시켜왔으나 일부 민간 영역에서 한계점이 나타났음
 - 국가간 바이러스 실험실 네트워크(national laboratory networks)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유전적 염기서열 진단 능력을 강화하여왔음
 - 홍콩은 초기 폐렴 입원환자들만 진단검사 대상으로 제한되어 왔지만 최근 외래, 응급 등 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하루 1500건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음
 - 일본, 초기 진단검사 능력이 공공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작동 하고 있고 민간 및 대학교 의료기관 영역에서 확장하지 못하였음. 일본은 해외 여행력이 없는 사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충분한 검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
- 일본, 홍콩, 싱가포르 모두 코로나19 확산 해외 지역 및 국가 사람들의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중국 본토 입국을 차단하고 있고, 최근에는 북부 이탈리아, 이란, 한국의 입국을 제한하여 왔음
 - 홍콩은 중국 본토에서 입국한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14일의 격리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 이란, 북부 이탈리아로부터의 입국을 차단하였음
 - 일본은 우한, 장저 시민들의 입국을 제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크루즈선의 입항을 제한하였음

○ 정부기관 간 협업 수준 현황 및 조치사항 : 높은 수준 협업 능력

- 일본, 홍콩, 싱가포르는 최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 경험을 겪으면서 보건당국의 협업 능력을 점검하여 왔음. 반면 일본의 조치 수준은 홍콩 및 싱가포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진함.
 - 2002년 중증 급성호흡기질환(SARs):홍콩과 싱가포르, 1997년 H5N1 조류독감: 홍콩, 2009년 신종플루(H1N1): 홍콩 싱가포르 및 일본
 - 홍콩과 싱가포르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일주일 내 각 부처 간의 협의회의를 개최하였음. 반면 일본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Diamond Princess cruise ship)에 대한 일본의 대처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때 비로소(2월 초), 각 부처 간 협의회의를 개최하였음

○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 마련 수준 현황 : 높은 수준 재정적 공공성

- 일본, 홍콩, 싱가포르는 국가 재원을 통해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자국 내 발생한 환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코로나19의 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일본 또한 정례 예산, 응급 기금을 통해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 홍콩은 전염병 대응 치료를 목적으로 배정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 기관 간 공조 수준 현황 : 기관 간 낮은 협업 수준

- 일본, 홍콩, 싱가포르 세 국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 기관 간 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본은 책임의료기관에 역할 및 책임을 지나치게 부여하여 책임의료기관과 지방정부와의 갈등 상황 발생
 - 싱가포르는 초기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민간 부문에게 정보 공유하는 데 제약이 있었음
 - 일본, 싱가포르 및 홍콩에서 집중치료 병상자원이 부족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요 자원 구비 수준 : 병원자원은 현재까지는 충분한 자원보유 vs 불충분한 지역사회 보호물품**
 - 일본, 홍콩, 싱가포르 세 국가 모두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제약, 의료용구들의 접근성은 보장되어 있음. 하지만 병원 내 개인용 보호물품 및 지역사회 내 마스크의 공급량 부족한 상황임
 - 일본 및 홍콩은 병원 공급 수준이 충분하지는 않으나 심각한 상황은 아님
 -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지속될 경우 병원 내 집중치료를 위한 의료용구, 제약재고가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
- **전염병 치료 및 관리 전문인력 보유 현황 :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부족이 예상됨**
 - 일본, 홍콩, 싱가포르 세 국가 모두 병원 내 전염 예방 및 통제 조치들을 위한 인력 훈련 및 조치들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감염병 전문 인력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음
 - 향후 코로나19 환자 및 타 질환 환자들의 발생 속도가 급증하였을 경우 의료인력의 부담이 가중될 것
- **정보교류 체계의 관리 현황: 집중 정보 교류체계 구비 vs 일부 장애 요인 존재**
 - 일본, 홍콩, 싱가포르 세 국가 모두 코로나19 대응관련 집중적 정보교류 체계를 구비하고 있음. 하지만 홍콩 및 일본은 기관 및 지역 간 정보교류에 있어 원활한 정보교류가 되고 있지 못함
 - 싱가포르는 매일 지역보건의로 관리자들과 병원장, 건강국 장관 간의 대책회의가 개최되고 있음
 - 홍콩은 정부기관과 공공병원 간의 정보교류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며 일본은 지방정부 간의 정보교류에 일부 미흡한 상황임
- **위험 커뮤니케이션 (risk management) 수준: 정부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수준 편차 존재**
 - 일본, 홍콩, 싱가포르 세 국가는 위험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중이 유언비어 및 가짜뉴스보다 정부당국을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싱가포르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위험 커뮤니케이션 관리 수준을 달성한 반면 홍콩 및 일본은 성공적이지 못함
 - 싱가포르의 보건 당국은 미디어 방송매체에 매일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보건 당국은 공공/민간의사들과 협업하여 텔레그램(telegram)과 왓츠앱(WhatsApp)을 통해서 정확한 의학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뉴스의 팩트체크를 하고 있음
 - 반면 홍콩 및 일본은 정부당국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이 성공적이지 못하였음
- **정치적 환경 및 지역사회 가치 및 분위기 : 낮은 정부 신뢰수준의 부정적 파급효과**
 - 홍콩, 일본, 싱가포르 세 국가 모두 정치적 갈등 및 낮은 정부신뢰 수준으로 인하여 유언비어 파급력이 거세지고 있음
 - 홍콩은 최근 민주화 시위 사건을 겪으면서 정부의 신뢰 수준이 하락한 바 있음. 이러한 정치적 영향이 시민들의 보건의로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 수준, 정부 기관의 정보 신뢰수준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생산하고 있음
 - 최근 홍콩 및 싱가포르에서 유언비어로 인해 슈퍼마켓 내 특정 식료품 및 생필품들의 품절현상이 발생하였음. 일본도 최근 문제되었던 크루즈선 격리 뉴스, 갑작스런 학교 휴교 결정으로 인하여 대중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 **결론: 세 국가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정부구조, 보건의로 전달체계, 공적 예산수준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관 간 낮은 협업 수준, 낮은 보호물품 공급수준, 부적절한 위험커뮤니케이션, 낮은 정부 신뢰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시 위 국가들의 보건의로 체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아직도 주요한 문제로 남아 있음
 - (해결책) 보건의로 체계와 다른 분야 간의 서비스 통합 수준 높을수록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음
 - (해결책) 환자, 보건의로 종사자, 사회의 신뢰수준이 보건의로 위기상황을 대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남

발생·치료 현황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감염경로 오리무중 확진자 비율 서울 35.1%...경북 28.1% 대구 17.9%

서울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체 확진자 125명(8일 오후 5시 기준)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수가 45명(35.1%)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와 경상북도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수는 각각 963명(17.9%), 304명(28.1%)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산발적 발병 사례는 1467명(20.6%) 수준이다. 코로나19 감염자 수 대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수를 살펴보면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율은 서울이 대구나 경북보다 높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8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를 제외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산발적 발병 사례는 1467명(20.6%)로 나타났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전국적으로 79.4%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20.6%로 대부분 조사가 진행되면서 감염 경로에 대한 부분들을 추적·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출처 : 뉴시스(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8_0000947136)

● "대구 안산다" 거짓말에 당한 서울백병원...6일간 무방비 접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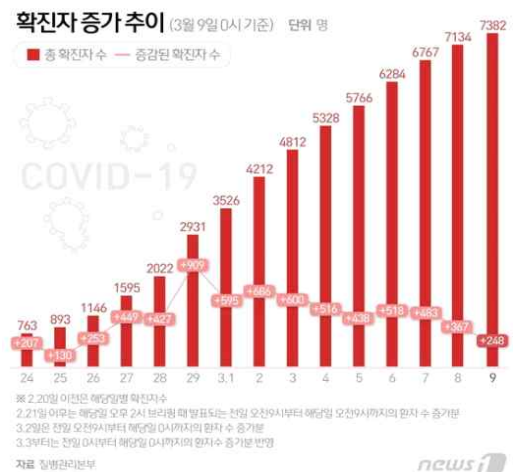
서울백병원 입원 중 확진 판명이 난 78세 환자가 70여명의 환자와 의료진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에 따르면 이 확진환자는 3일 입원해 8일 확진까지 4인실에서 입원 진료를 받았다. 대구에서 온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6일가량 다른 환자와 의료진이 무방비 노출됐다. 서울백병원 측이 수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물었지만 환자가 부인했다고 한다. 병원 측은 이 환자가 입원한 층의 다른 환자를 두 개 층으로 나눠 이동 배치하여 격리하고, 접촉한 간호사 등의 의료진도 격리했다. 병원 측은 확진환자가 입원한 층의 환자뿐 아니라 모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서울백병원은 외래 진료를 중단하고 응급실을 폐쇄했다. 또 8일 오전 9시 이후 입원·퇴원, 외부인 방문을 금지하고 전 직원 이동을 금지했다.



출처 :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23725011>)

● 확진자 12일만에 200명대로 '뚝'...248명 늘어 총 7382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기준 확진자가 총 7328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날 0시 기준 대비 248명 늘었고, 통계가 마지막으로 발표된 전일 오후 4시 이후로는 69명이 추가됐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 이후 12일만에 200명대로 떨어졌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경북 경산, 봉화 등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가 차단 방역에 나선 상황이다. 출처 : 뉴스1(<https://www.news1.kr/articles/?3867133>)



● 전국 최연소 확진자일 듯...생후 4주 신생아 코로나 확진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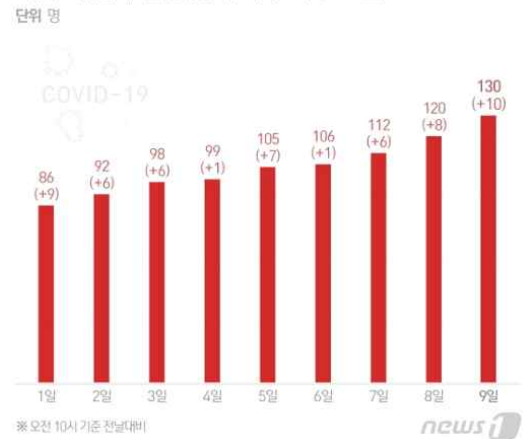
생후 4주의 신생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신생아는 전국 최연소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알려진 전국 최연소는 지난 1일 경북 경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45일 신생아였다.

출처 :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33673&code=61172211&cp=nv>)

● '서울, 심상치 않다'...확진자 수 최근 일주일간 '최대 폭' 증가

서울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30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들어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다. 더욱이 생후 4주 신생아가 확진판정을 받는 등 온가족이 감염된 사례도 나와 지역 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9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0명이 추가되어 130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101명은 격리중이고 29명은 퇴원했다. 자치구 별로는 강남구·송파구(12명), 종로구·동대문구(11명), 노원구(9명), 은평구(8명) 순으로 집계중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지역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보건소의 기초 역학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코로나19대응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확진자 일일 증가 폭 추이 (1~9일)



출처 : 뉴스1(<https://www.news1.kr/articles/?3867178>)

● 거주지 숨긴 서울백병원 확진자와 같은 병실 환자 모두 '음성'

서울백병원에서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병원에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된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들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백병원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로 판정된 78세 여성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 2명은 진단검사서 음성이 나왔다. 서울백병원은 현재 응급실과 외래, 입원 병동 일부를 폐쇄 조치하고 소독을 시행했다. 확진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과 직원, 환자 등은 격리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9033700017?input=1195m>)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분당서울대병원 직원 1명도 확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운영 중인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내 일부 진료센터가 폐쇄됐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1동 지하 2층 통증센터의 안내직 사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9일 오전 9시를 조금 넘어 통증센터를 폐쇄하고 외래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증센터에는 의료진 등 10명 인원이 근무했으며 이들 모두 격리됐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9092351061?input=1195m>)



● KDI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 경기 전반 빠르게 위축"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 경기 전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104.2에서 96.9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소비 활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KDI는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투자심리도 큰 폭으로 악화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월 투자 BSI는 전월 95.5에서 89.5로, 제조업은 96.5에서 87.7로, 비제조업은 94.1에서 91.8로 큰 폭으로 둔화했다. 투자심리 역시 빠르게 악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KDI는 진단했다. 2월 수출은 조업일수 확대로 4.5% 증가했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은 전월 5.9% 증가에서 12.2% 감소로 전환했다. KDI는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던 노동시장 역시 코로나19로 악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한다면 서비스업과 일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시장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주가, 원화 가치, 금리가 모두 하락하고 불확실성 지수도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7060200002?section=economy/all>)

● 코로나19 '남북 보건협력'...통일부의 딜레마

코로나19 확산 속에 남북 정상은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남북 간 보건협력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통일부는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친서 교환이 장기간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국면에서 선불리 대북 협력이나 지원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고민 때문이다. 통일부는 "후속 조치를 준비한다기보다 코로나19 상황이나 한반도 정세 등 제반여건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나가도록 하겠다"며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는 배경으로 우선 북한의 공식적인 지원·협력 요청이 없다는 점을 꼽는다. 북한 내부의 방역 강화 실태나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움직임 등으로 볼 때 북한 내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정들이 나오지만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19 지원이나 협력 제안을 하긴 어렵다. 두번째 요인은 국내 여론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꺾이지 않고 마스크 등 의료·방역 기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남북 간 보건협력이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정부는 경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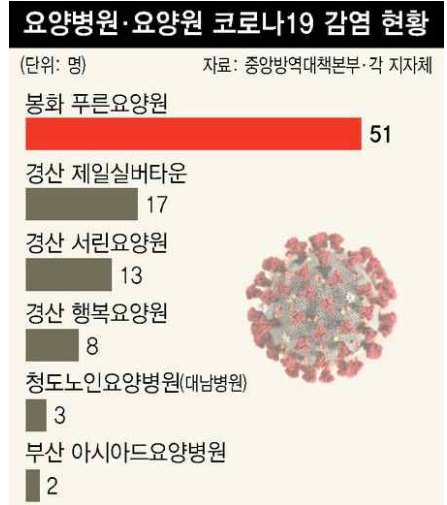
출처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082220005&code=910303)

● “추경, 코로나 충격 흡수 역부족...취약계층 직접 지원 늘려야”

국회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이번주 본격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메르스 사태 때와 비슷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공방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진단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의 규모와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선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 자체가 중단된 상황에서 생계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추경에서 직접 지원의 비중과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비비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이 제도도 소득·재산 기준 등 지원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출처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082226015&code=910402)

● **다인실·간병인 접촉 많은 요양원 감염병 관리 취약**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요양원)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이 보건당국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근본적으로 여러명이 한방에서 지내는 다인실 구조인데다 의료진이 아닌 간병인에게 돌봄을 의존하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감염 예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고령 어르신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어떻게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이고 (앞으로의 확산을 가르는) 관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집단시설도 있지만, 보건당국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각별히 주시하는 이유는 위중한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은 고령 기저질환자가 다수인 시설이기 때문이다.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 시설에 대한 엄격한 출입관리로 추가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출입제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11~12일에 걸쳐 철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31687.html>)



● **“코로나로 심리적 위기 겪는 시민들에게 ‘마음의 백신’ 드려요”**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안에 ‘서울시 코비드 (COVID)19 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심리지원단은 김현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을 단장으로, 응급의학과내과 교수와 정신건강전문요원, 예술치료사 등으로 구성됐다. 김 센터장은 현재 시민들이 ‘심리적 위기 상태’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면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뿐 아니라 라면 등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공포로 인한 병리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공포는 그 자체로 질병에 맞서는 면역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불안정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게 한다.” 가짜뉴스를 믿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행동을 하거나, 질병이 있음에도 감염 우려로 병원에 가지 않아 몸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극단적으로 시민들이 국가를 불신해 정부가 권하는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분노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도 “한국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31658.html>)



● **서울시, 자치구 코로나19 역학조사 강화...즉각대응반 구성, 후속조치**

9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최초인지 보건소가 기초 역학조사를 실시해 서울시에 보고한 뒤 시 역학조사관이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제는 자치구 보건소의 역할을 강화해, 확진판정시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바로 후속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시는 '즉각대응반' 가동뿐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반, 자료분석반, 전문가 자문단 등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자치구 역학조사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별 역학조사관을 확대하고 교육을 실시해 역학조사관을 배정한 상태다.

출처 : 뉴시스(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9_0000947898&cID=14001&pID=14000)

● SW업계, 바이러스 대응 위해 뭉쳐... '코로나19 종합상황지도' 제공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프트웨어(SW) 업계가 바이러스 확산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국SW산업협회는 협회 회원사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모집된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팀을 꾸리고 9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나섰다. 이들 업체는 함께 종합상황지도를 만들어 현재까지 1억 뷰를 달성했다. 모바일과 데스크톱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접속 지점을 근처의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99686625701680&mediaCodeNo=257&OutLnkChk=Y>)

● 문대통령 "코로나19 확진자 추세적으로 꾸준히 줄어...나관 금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8일) 0시에 비해 248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12일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검사 및 투명한 정보 공개'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에 주력해 왔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험성이 높은 지역부터 전수조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종교 등 다중행사는 국민들께서 조금 더 자제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911860001?input=1195m>)

● 기존 인력으로 24시간 코로나 대응... 더 버티기 힘든 보건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 인력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보건소(25곳) 내 선별진료소 25곳에 더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선별진료소 14곳을 추가하면서 구 보건소가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는 모두 39개로 늘었다. 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달 말까지 선별진료소를 최대 5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력 보충은 이뤄지지 않았다. 선별진료소에서는 의사 2~5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공무원 인력의 과로로 인한 2차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코로나19 비상 근무 중 과로로 쓰러진 경북 성주군의 담당 공무원이 지난 6일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라면서 "빠른 시일 안에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 기본 보건·의료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Pn(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09011037&wlog_tag3=naver)

● 정부 "재난기본소득보다 추경 민생예산이 우선"

정부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제'를 두고 "현 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우선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가능하면 다음주 월요일(16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마칠 예정이므로 집중적으로 (추경)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아마 이런(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있겠지만 우선 정부가 반영한 예산들이 우선적으로 편성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우선 고려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뉴스시스(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9_0000948041&cID=10201&pID=10200)

● 코로나로 격리된 노동자, 유급 보장해야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는 그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노동자가 업무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격리된 근로자의 일급을 1일 13만원을 상한으로 해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으려면 업무상 재해여야 한다. 업무상 재해를 입증 받으려면 코로나19에 걸린 상황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출처 : 내일신문(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42942)

● 코로나19 국내 멈칫 해외 확산...정부 방역전략 해외 차단으로

전날(8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도 "현재 코로나19 확산추이는 다소 정체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안정화 초기 단계'로 판단했다. 문제는 국내가 아닌 해외다. 중대본은 중국 외 국가에서 해외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자 해외 유입 차단 방안을 방역전략으로 내세웠다. 국내 지역감염 전과 차단과 동시에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절차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003091451552666>)

연구동향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국내 제약바이오 15곳 백신·치료제 개발 시작했지만... 상반기 상용화 힘들 듯

국내 15개 제약바이오 기업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지만, 아직 시작단계라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 역량에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는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백신이나 치료제의 경우 동물실험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아직 개발 초기인 데다 임상시험 이전 단계여서 바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될거라는 성급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처 : 조선일보(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9/202003090197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코로나19 없다는 북한..."강원·자강도, 3천650여명 격리 해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격리했던 주민 중에서 이상징후를 보이지 않는 일부에 대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8일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 중앙방송에 따르면 강원도와 자강도에서 5일 현재 각각 1천20여명, 2천630여명 등 총 3천650여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에 대한 격리해제 조치가 집행됐다. 중앙방송은 이번 격리해제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의학적 기준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는 대상들에 한해서 날짜별로 장악하고 개인별로 건당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나서 코로나19가 절대 유입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체제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도 "비루스가 절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최대의 경각성을 높이면서 방역사업에서 놓친 것이 없는가를 수시로 장악하고 즉시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청청지대 주장을 이어갔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8009951504?section=search>)



● **북한 '코로나19 취약' 아동·노인 각별관리...방역물품은 태부족**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쏟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고령의 코로나19 환자 사망 건수가 증가하는 해외 사례에 주목하면서 노인과 어린이 대상 실시 중인 주요 방역 조치들을 소개했다. 신문은 보건 분야 방역요원들이 담당 구역별로 "심장병,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의학적 관찰을 면밀히 진행하고 있다"며 "각지 양로원 생활시설에 대한 소독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방역이 연장된 어린이와 학생들은 외출을 자제시킨 채 가정에서 관리 중이다. 이는 북한이 어린이와 노인들의 경우 특히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성 질환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7일 현재까지도 확진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물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근 김철수 북한 보건성 중앙위생방역소 소장은 대외 홍보용 월간지인 '금수강산' 3월호 인터뷰에서 검사시약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언급, 방역물품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7020200504?section=search>)

● **북, 코로나19 격리자 1만명 중 39% 해제... "감시는 계속"**

북한 매체가 밝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자가 1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격리해제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노동신문은 격리 및 해제 규정에 대한 지침도 처음으로 소개했다 신문은 그동안 '의학적 감시 대상자'라고만 언급했던 격리 대상자에 대한 지침도 소개했다. 북한은 우선 '1차 위험대상자'를 '입국자'로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격리 해제는 대상별로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1차 위험대상자와 함께 격리된 사람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현재까지 북한 매체들이 공식 확인한 격리자는 평안남도 2420여명, 평안북도 3000여명, 강원도 1500여명, 자강도 2630여명 등 9550여명이다. 여기에 평양 주재 외국인 380여명까지 포함하면 약 1만명에 달한다.

출처 :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0309509232?OutUrl=naver>)

● '이제는 유럽이' 코로나19 신규확진 최다...프·독 등에서도 급증

이탈리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일(현지시간) 한국을 넘어서는 등 유럽 대륙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유럽 지역은 최근 들어 일일 신규 확진자가 대륙별로 가장 많은 추세를 보이면서 이날까지 확진자가 모두 1만 명을 넘어서었다. 특히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른 곡선을 그리고 있어 정점을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북부 롬바르디아주(州) 등 15개 지역에서 가족 만남 및 중요 업무 목적을 제외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안을 마련했다. 또한, 스페인, 헝가리, 그리스 등에서 대중이 많이 모이는 대형 행사 및 시설들을 취소 및 폐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입을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스 재무부는 오는 9일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9003900082?section=search>)

● "미 보건당국, 대중에 코로나19 경고하려다 트럼프의 호통만" 미국 보건당국이 지난달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경고하려 했으나 돌아온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통이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숨기는 데 급급해 제대로 대비도, 대처도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미 언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NYT는 미국 정부 소속 전문가들이 일찍부터 코로나19에 대한 경고음을 발신하고 적극적 조치를 강조했으나 금융 시장 혼란과 패닉 조장 우려를 내세운 백악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의심과 저항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고 모두가 침착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당부하는 데 대해 대통령이 유행병 확산 상황에서 침착을 당부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이지만 결국 미국인들이 덜 준비되게 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이해를 늦추게 했다고 꼬집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9004351071?section=search>)

● WHO 사무총장 “한국 코로나 전투 진전...강경화 장관 300만달러 감사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8일(현지시간) "한국이 코로나19와의 전투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매우 생산적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WHO는 코로나19를 억제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한국의 참여에 감사한다"면서 "강 장관이 글로벌 대응을 위해 300만 달러(약 35억7300만원) 지원을 약속한 데에도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트위터에서 이탈리아 정부의 북부 지역 봉쇄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탈리아 정부와 국민은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고 국가와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대담하고 용기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탈리아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조선일보(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9/202003090054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붙임1]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

● 예시1.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의 환자 중증도 분류

확진자 구분	분류 기준	보호 방안
무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조건 모두 충족 ① 의식명료 ② 50세 미만 ③ 기저질환없음 ④ 비흡연자 ⑤ 해열제 복용없이 37.5도 미만 	연수원, 호텔 등 시설격리
경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50세 미만 ② 5기저질환 1개 이상 ③ 해열제 복용하여 38도 이하 	
중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② 호흡곤란 	감염병 전문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 중환자실)
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식이 떨어진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 중환자실)

* 장기요양시설,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한단계 상승

* 각 단계에서 기준 증상이 해결되고 48시간 지나면 한단계 아래로 전원가능

● 예시2. 혈압, 체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의 환자 중증도 분류

변수	3	2	1	0	1	2	3
맥박(회/분)		≤40	41~50	51~100	101~110	111~130	≥131
수축기 혈압(mmHg)	≤70	71~80	81~100	101~199		≥200	
호흡수(회/분)		≤8		9~14	15~20	21~29	≥30
체온(℃)		≤35.0	35.1~36.0	36.1~37.4	≥37.5		
의식수준				정상	목소리 반응	통증 반응	무반응

* 환자가 급격한 위급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

● 중증도 분류에 대한 조치사항

위험정도	경증(저위험군)	중등중(중등도위험군)	중증(고위험군)	최중중(고위험군)
점수	0~4점	5~6점	7점 이상	7점 이상
모니터링 빈도	6~12시간	1~2시간	지속	지속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호흡 등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CRRT, ECMO 필요 비가역적 뇌손상, 다발장기 부전, 말기 만성 간질환 또는 폐질환, 전이성 종양 같은 사망에 직면한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

*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간주하여 병상 배정

● 고위험군

고위험군 연령	• 65세 이상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 (지자체용)

[붙임2] 전국 국민안심병원 현황

[국민안심병원 현황]

연 번	자치구	기관명	신청유형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베드로병원	외래진료	02-1544-7522
2	강남구	나누리병원	외래진료	1688-9797
3	강남구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019-2114
4	강남구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외래진료	02-6925-1111
5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440-8114
6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외래진료	1588-4100
7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25-1111
8	강서구	나누리병원	외래진료	1688-9797
9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522-7000
10	관악구	심정병원	외래진료	02-1588-3330
11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877-8875
12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1533
13	광진구	혜민병원	외래진료	02-2049-9000
14	구로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626-1114
15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	외래진료	02-858-0100
16	금천구	희명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04-0002
17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외래진료	02-970-8000
18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외래진료	02-950-1114
19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외래진료	02-970-2114
20	도봉구	한일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01-3114
21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58-8114
22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77-3675
23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외래진료	02-966-1616
24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70-2114
25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6299-1114
26	서대문구	동신병원	외래진료	02-396-9161
27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99-1004
28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1511
29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90-8114
30	성북구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20-5114
31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외래진료	02-912-0100
32	양천구	메디힐병원	외래진료	02-2604-7551
33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650-5114
34	양천구	홍익병원	외래진료	02-2693-5555
35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661-7575
36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외래진료	1899-1475
37	영등포구	성애병원	외래진료	1811-8114
38	영등포구	영등포병원	외래진료	02-2632-0013~8
39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29-5114
40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709-9114
41	은평구	본서부병원	외래진료	02-3156-5000
42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외래진료	02-353-5511~9
43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5700
44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외래진료	02-2002-8000
45	종로구	세란병원	외래진료	02-737-0181
46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60-7114
47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외래진료	02-2270-0114
48	중랑구	녹색병원	외래진료	02-490-2000
49	중랑구	동부제일병원	외래진료	02-437-5011
총합	22개 자치구	49개소	외래 26개소, 외래진료 및 입원 23개소	-

지역(시도)	기관명
부산(30)	BHS한서병원, 광혜병원, 구포성심병원, 기장병원, 김원목기념봉생병원, 대동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동래봉생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민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성모병원, 부산센텀병원, 부산우리들병원, 삼육부산병원, 세웅병원*, 에스병원, 영도병원, 오성병원, 온종합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일신기독병원, 좋은강안병원, 좋은문화병원, 좋은삼선병원, 한양류마디병원, 해동병원, 해운대부민병원*, 화명일신기독병원, 효성시티병원
인천(21)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검단탑병원*, 길병원*, 나누리병원(부평구), 나누리병원(미추홀구) 나사렛국제병원*, 나은병원*, 뉴성민병원, 더드림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부평세림병원, 비에스종합병원*, 성모월병원, 온누리병원, 인천기독병원, 인천백병원, 인천사랑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한림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대구(13)	경북대학교병원, 광개토병원, 구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칠곡가톨릭병원, 대구보광병원, 대구시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드림병원, 삼일병원, 세강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천주성삼병원, 푸른병원
광주(4)	광주기독병원, 서광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첨단종합병원
대전(6)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선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한국병원, 유성선병원
울산(9)	21세기좋은병원, 동강병원, 서울산보람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울산병원, 울산보람병원, 울산시티병원, 좋은삼정병원, 중앙병원
경기(72)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강남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광명성애병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김포우리병원*, 나누리수원병원, 남양시에스병원*, 남양주한양병원, 뉴고려병원*, 다니엘종합병원, 다보스병원, 단원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동수원병원, 메디인병원, 명지병원*, 바른마디병원, 바른세상병원, 박병원*, 박애병원*, 베리굿병원, 부천우리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제생병원*, 사랑의병원, 서울나우병원, 성베드로병원, 세종병원*, 세종여주병원*, 센트럴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시화병원, 신천연합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안성성모병원, 안양윌스기념병원,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연세새로운병원, 예순병원, 오산한국병원, 온누리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원광종합병원, 윌스기념병원, 의정부백병원, 이천엘리아병원, 이춘택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일산복음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 정병원*, 조은오산병원, 중앙대의료원교육협력현대병원*, 지샘병원, 지우병원, 참조은병원, 평택굿모닝병원*, 평택성모병원*, 포천우리병원, 하남SD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화성중앙종합병원*, 히즈메디병원
강원(6)	강릉고려병원, 강원대학교병원*,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속초보광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홍천아산병원
충북(9)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베스티안병원, 제천명지병원, 제천서울병원, 진천성모병원, 청주성모병원, 하나병원, 한국병원, 효성병원
충남(12)	단국대학교병원*, 당진종합병원, 백제병원, 본정형외과병원, 서산중앙병원, 서울대정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아산충무병원*, 예산종합병원, 천안우리병원, 천안충무병원*, 현대병원
전북(9)	고창종합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대자인병원, 동군산병원*, 예수병원*, 익산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병원*
전남(11)	고흥종합병원*, 목포기독병원*, 목포시의료원, 목포중앙병원,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 순천한국병원*, 여수제일병원, 여수한국병원, 여천전남병원, 장흥종합병원
경북(14)	경산중앙병원, 김천제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문경제일병원, 상주성모병원, 세명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안동병원, 안동성소병원, 좋은선린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우리병원
경남(27)	365병원, CNA서울아동병원, 갑을자유병원, 거봉백병원, 거창적십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김해복음병원, 마산서울병원, 맑은샘병원, 밀양윤병원, 반도병원, 베데스다병원, 삼천포서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에스엠지연세병원*, 연세에스병원, 조은금강병원, 진영병원, 진주고려병원, 진주바른병원, 진주복음병원, 진주세란병원, 진주제일병원, 창원제일종합병원, 청아병원, 한일병원, 함양성심병원
제주(4)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총합	15시도 248개소

별(*)표시 기관은 외래/입원/선별진료소 운영기관 그 외 외래진료만 운영. 출처(3,8) : 대한병원협회, 국민안심병원 최신현황 (<https://www.kha.or.kr/>).

[붙임3] 서울시 선별진료소 목록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구보건소*	02-3423-5555	37	서초구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2-1588-1511
2	강남구	삼성 서울병원*	02-3410-2114	38	서초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02-570-8000
3	강남구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3114	39	성동구	성동구보건소*	02-2286-7172
4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02-440-7000	40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02-2290-8114
5	강동구	강동구보건소*	02-3425-8565	41	성북구	성북구보건소*	02-2241-6022
6	강동구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02-2224-2358	42	성북구	(학)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안암병원) *	02-1577-0083
7	강동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02-2225-1100	43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02-2147-3478-9
8	강북구	강북구보건소*	02-901-7706 02-901-7704	44	송파구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02-3010-3114
9	강서구	강서구보건소*	02-2600-5868	45	송파구	경찰병원*	02-3400-1124
10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02-1522-7000	46	양천구	양천구보건소*	02-2620-3856
11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02-879-7131	47	양천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02-1566-6688
12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신사동 코로나19 건강상담소	02-879-7241	48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02-1666-5000
13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02-1877-8875	49	영등포구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953
14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02-450-1937	50	영등포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02-829-5114
15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자양보건지소	02-450-7090	51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02-1661-7575
16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02-1588-1533	52	영등포구	성애의료재단성애병원*	02-840-7114
17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02-860-2003	53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02-829-7800
18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가리봉동선별진료소*	02-860-2018	54	용산구	용산구보건소*	02-2199-8371-4
19	구로구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02-2626-1114	55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02-709-9114
20	금천구	금천구보건소*	02-2627-2717	56	은평구	은평구보건소*	02-351-8640
21	금천구	독산보건분소	02-2627-1967	57	은평구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	02-3156-3022
22	노원구	노원구보건소*	02-2116-3300-4	58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02-300-8060
23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02-970-8000	59	은평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02-958-2114
24	노원구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02-950-1114	60	종로구	종로구보건소*	02-2148-3557
25	도봉구	도봉구보건소*	02-2091-4483	61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02-2001-2001
26	동대문구	동대문구보건소*	02-2127-4283	62	종로구	서울직접자병원	02-2002-8650
27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02-958-8114	63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02-2270-0114
28	동대문구	삼육 서울병원*	02-1577-3675	64	중구	중구보건소*	02-3396-5181
29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동부병원*	02-920-9118-9	65	중구	중구보건소 명동선별상담소	02-3396-5181
30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02-820-9465	66	중랑구	중랑구보건소*	02-2094-0800
31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신대방선별진료소	02-832-9404	67	중랑구	서울의료원*	02-2276-8333
32	동작구	보라매병원*	02-870-2114	68	서초구	서초 소방학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33	마포구	마포구보건소*	02-3153-9037	69	송파구	잠실주경기장	
34	서대문구	서대문구보건소*	02-330-8726	70	은평구	서울시립은평병원	
35	서대문구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02-1599-1004	71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36	서초구	서초구보건소*	02-2155-8093				

* 검체채취 가능

* 출처(3,8)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마이크로페이지(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